

사 회 과 학 론 문 집

주 제 90(2002)년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사회과학논문집

- 2월명절 기념 -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차 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 (발취)

P5~

심 포 줌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 조선반도 정세 론 고 —

P13~

발언자 — 강일천 (조선대학교 강사, 사협중앙 연구기획부장)
문광우 (조선신보사 편집국부국장)
서충언 (총련중앙 국제국부장)
사회자 — 한동성 (조선대학교 조교수, 사협중앙 국제부장)

(자료 1) 2000 년과 2001 년의 경제건설성과비교

(자료 2) 당의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2 달동안의 경제문제관련 론설 및 기사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주체 90(2001)년 10 월 3 일로작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의 주요내용을 구성할것으로 지목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론 문

P40~

수령을 노래한 재일조선문학의 사상주제적특징

손 지 원 (40)

현시기(2000 년전후) 공화국의 경제동태에 대하여
~경제적난국을 벗어 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김 수 대 (56)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대한 몇가지 평가(제 15 보)
— 최근시기 토지개량사업을 중심으로 —

사 공 준 (63)

《실천》이란 무엇인가

최 권 일 (7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 (발취)

«나는 지금까지 인민군대를 틀어 쥐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왔습니다.나의 혁명투쟁력사는 선군혁명령도력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기본요구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드는것과 함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것입니다.»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을 자기 힘으로,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며 그 어떤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도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군사중시정책은 우리 당이 어느 시기에나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지만 선군정치 방식은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엄혹해 지는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내가 새롭게 정식화하여 내놓은것입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군대의 위력이 더욱 높아 졌을 때 나는 우리의 령도는 선군령도이고 정치방식은 선군정치라는것을 밝혔습니다.» 주제 88(1999)년 2월 8일

«만일 처음부터 선군정치를 한다고 하였더라면 <군사독재>,<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왔을지 모릅니다.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를 이룰 때에만 전당,전민,전군을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습니다.혁명적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해 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되며 혁명군대는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고 당이 군중을 조직동원해 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당과 군대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썩아도 싸워 이길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정일선집》 13 권 439 페이지

《우리는 군대와 당을 별개로 보는것이 아니라 군대를 공화국의 아들이자 당의 아들,인민의 아들이라고 봅니다,당과 군대,인민이 하나로 뭉친 여기에 우리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주체 85(1996)년 11월 9일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끊임 없는 군사적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국가도 당도 있을수 없습니다.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일선집》 14 권 267 페이지

《나는 언제나 총과 숨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총에 대한 나의 지론이고 총관입니다.》

《우리의 총은 계급의 무기,혁명의 무기,정의의 무기입니다.우리의 총에는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 있으며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당의 선군정치가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완성된 정치방식이지만 그것은 수령님의 혁명방식을 계승발전시킨것입니다.》

《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는 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오신 력사입니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사실상 선군혁명령도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의 업적과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시하는 선군정치의 기초에 놓여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에게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국가행정경제사업실무에 맡겨 들지 말고 당과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습니다.》 주체 83(1994)년 7월 11,1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11 살때 나에게 권총을 주시였습니다. 그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나에게 장난감 대신 권총을 주시였는가 하는것을 미처 다 몰랐습니다.

나는 곡절 많은 혁명의 길을 걸어 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어린 나에게 권총을 주시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제 84(1995)년 6 월

《수령님께서는 군대를 나에게 넘겨 주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때에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권총을 수여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우리의 선군령도는 이처럼 수령님께서 바라시던것이고 계획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제 89(2000)년 1 월 2 일

《우리 혁명의 앞으로의 승패도 결국은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며 당의 혁명무력인 인민군대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과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전심전력하는것이 혁명에 이바지하는 옳은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과 함께 인민군대를 가지고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수하려는것은 나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입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입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시었을 때에는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사업하였지만 지금은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믿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와 낮우에 총대가 있다고 말합니다,이것은 우리당의 독창적인 군사중시사상,선군정치로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문제는 혁명의 성패와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더욱 강화하여야만 승리합니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동무들은 내가 왜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지만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리 한다면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습니다.》

《동무들은 내가 왜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때에 공장이나 농촌을 현지지도 하지 않고 인민군부대들에 자주 나가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다음 만경대갈림길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를 때려 부시고 조국에 개선하시여 조부모님들이 기다리시는 만경대에도 들리지 않으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아 가시였습니다.해방직후 우리에게는 당도.국가도.정규군대도 없었으며 국고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그때 새 조국건설에서 우리가 믿을것이란 오직 로동계급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지금 우리에게는 강력한 당과 국가가 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어 있습니다.우리가 현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자면 인민군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제 86(1997)년 3월 3일

《적과의 대결은 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입니다.나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합니다.군사적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합니다.군사력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입니다.》 주제 83(1994)년 12월 25일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대한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인민군대를 중요경제부문에 파견한것은 경제를 추켜 세워 생산을 정상화 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 마는 인민군인들의 높은 충성심과 혁명적일본새를 사회사람들에게 보여 주어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자는데 있습니다.》

주제 87(1998)년 11월 22일

《오늘과 같은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군대가 강하고 군대에서 발휘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야 적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수령님의 유훈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의 원천입니다.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곳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기적과 혁신이 일어 납니다.혁명적군인정신이야말로 내 나라,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입니다.》 주제 87(1998)년 1월 1일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이것이 군민 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입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를 본보기로 우리 혁명대오를 정예화하자는것이 나의 의도이고 결심입니다.》 주제 87(1998)년 3월 29일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이겨 내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자강도를 본보기로 하여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낼것을 결심하고 도당책임비서에게 과업을 주었었는데 그후 강계에 가보니 불굴의 혁명정신,자력갱생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씨앗으로 하여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온 나라에 지펴 올렸습니다.

강계정신은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주제 89(2000)년 6월 29일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위한 작전을 바로 자강땅에서 구상하시고 펼쳐 나가시였습니다.

나는 오늘 <고난의 행군>,강행군의 돌파구를 자강땅에서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걷는 오늘의 이 행군이 력사적인 강행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제 88(1999)년 9월

《지금 생각해 보면 <고난의 행군>시기에 나에게 제일 큰 힘을 준것이 강계정신입니다.강계정신은 <고난의 행군>시기 나에게 힘을 주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강계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주제 89(2000)년 2월 16일

《강계정신은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창조된 사회주의수호정신이며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 투쟁정신입니다.》

주제 89(2000)년 3월 1일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강계정신은 나에게 힘을 주고 정신적량식으로 되었습니다.그 어떤 보약도 강계정신처럼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였을것입니다. 나는 강계정신을 언제나 잊을수 없습니다.》 주제 89(2000)년 6월

《지금 인민군대가 강하니 미국도 우리를 어찌지 못하고 찔쩍 매고 있습니다.우리가 선군령도를 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지 않고 돈냥이나 하러 다니었다라면 미국놈들에게 먹히고 망하고 말았을것입니다.》 주제 88(1999)년 9월 27일

《우리의 <붕괴론>을 떠들던 적들이 이제 와서 <체제유지론>을 들고 나오게 된것은 결국 우리를 붕괴시킬수 없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됩니다.이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주제 89(2000)년 1월 1일

《선군정치는 군대만 강하게 만든것이 아니라 우리의 혁명진지전반을 튼튼히 다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전군,전민을 영웅적투쟁으로 조직동원하였기때문에 력사에 류례 없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 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지켜 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습니다.실천적투쟁경험은 우리의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위력하고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총대중시사상으로 선군령도를 하여 이 땅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2월의 명절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에 즈음하여 《2월의 명절기념 2002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가 2월 3일 도쿄예술극장(東京芸術劇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배진구문화선전국장,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김화효회장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먼저 김화효회장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새 세기 첫 해에 나라의 강성부흥과 지주화된 새 세계건설의 새 기원을 마련하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기념보고를 하였다.

이어서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심포움이 진행되었다.

심포움에 이어 정치-철학분과, 경제-경영분과, 재일조선인문제분과, 역사지리-어문분과의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날 학술보고회에 이어 사회과학자들의 교류를 깊이는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역사적인 올해 사협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을 앞장서 집행할 회원들의 뜨거운 마음과 결심들이 피로되었다.

학술보고회에 앞서 《역사적인 주체 91(2002)년도 사협앞에 나선 과업을 적극 수행할데 대하여》라는 의제로 사협중앙리사회 제16기 제2차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고 사협중앙리사회 상임고문 고관민선생, 사협 효고자부에 각각 학술장려상이 수여되었다.

2월의 명절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

민족최대의 경사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단신절이 하루 하루 다가 오는 속에서 3일 오후 2월의 명절기념 2002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東京芸術劇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총련중앙 배진우 문화선전국장과 사학중앙 김화효회장을 비롯한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이 참가하였다.

학술보고회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의 단신절에 즈음하여 김화효회장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새 세기 천재에 나라의 강성 부흥과 자주화 된 새 세기 건설의 새 기원을 마련하신 21세기의 위대한 대업이다》라는 제목으로 기념보고를 하였다.

그는 먼저 주체위업의 위대한 대업으로 높이 솟아 오르는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 올린 장군님의 위대한 한평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세기 다지마년대에 선군정치로 《고난의 행군》과 강경군을 승리하여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실록은 영원불멸한 영도업적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지적한 그는 새 세기 천재에 강성대국건설의 비약을 가져 오시기 위하여 위대한 영도와 강력한 대외전력으로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상을 최상의 높이에 올리고 온 세기의 자주화일을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명의 업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즘을 하였다. 심포즘은 사학중앙 상임리사이며 조선대학교 강사인 장일진,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인 문광우, 총련중앙 국제국 부장인 서승일이 발언하고 출신하고 사학중앙 상임리사이며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부학부장인 한동성의 차례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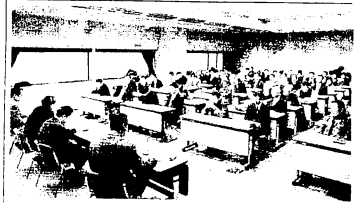
발언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아래 비약의 나래를 펼치는 우리 나라 강성대국건설의 현황과 전망,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과 그 전망들에 대하여 과학 이론적인 태도를 주었으며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심포즘에 이어 4개 단위로 나누어 분과별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정치, 철학분과, 경제, 경영분과, 재일조선인문예체과, 역사, 지리, 어문학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일선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하여 온 15년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다.

학술보고회에서는 사학회원과 사회과학자들의 교류를 꾀하는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학술보고회에 앞서 《역사적인 주체91(2002)년도 사립일에 나선 과업을 적극 수행할 데 대하여》라는 의제로 사학중앙 사회 제16기 제2차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되고 2명의 사회회원들에게 학술장려상이 수여되었으며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朝鮮半島情勢シンポ

在日朝鮮社会科学者學術報告会

『2002年度在日朝鮮社会科学者たちの學術報告会』(主催=在日朝鮮社会科学者協会)が3日、東京・池袋の東京芸術劇場中会議室で開かれた(写真)。総聯中央の賀儀求文化宣伝局長も参加した。

総聯の金和事会長による記念報告に続き、『朝鮮半島』巻のう、今日、そして明日—朝鮮半島情勢論—と題したシンポジウムが行われた。訪東成・国際部長(朝鮮大学校助教授)の司会のもと、姜日天・研究企画部長(朝大講師)が『朝鮮経済の過去10年と経済強国建設の展望—サブババルから再建、強復への道—』、文光浩・朝鮮新聞社副社長が『北南共同宣言履行の現状と展望』、徐忠孝・総聯中央国際部副部長が『ブシ・政権と朝米関係の行方』をテーマに発言し、会場との質疑応答も交えて議論した。続いて、『哲学・政治』『経済・経営』『歴史・地理』『在日朝鮮人問題』の4分野別に討論会が行われた。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 학술보고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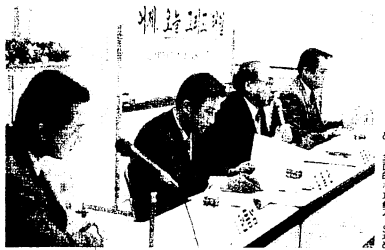
위대한 영도와 김정일장군님의 단신절에 즈음하여 2002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가 3일 오후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장면에는 위대한 주체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와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보고회에는 총련중앙상임리사이며 배진우문화선전국장, 재일조선사회과학자학회 김화효회장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 총련중앙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선

군정치로 새 세기 천재에 나라의 강성대국과 자주화 된 새 세기 건설의 새 기원을 마련하신 21세기의 위대한 대업이다》라는 제목으로 김화효회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새 세기에 강성대국건설을 승리로 오직 영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대업으로 높이 모신 주체의 대지치신으로 된 위대한 증지와 자주성에 넘쳐 있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의 현명성에 언급하였다.

그는 사회과학자들은 총련 제19차 전체대회결정집에서 결정적인 통과를 얻어 놓아야 할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사업에서 새로운 승리와 진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의 지난 10년과 경제강국건설의 전망》, 《북남공동선언의 현황과 전망》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으며 4개 분과회의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社協學術報告会でのシンポジウム 「朝鮮半島 昨日、今日、そして明日」 —朝鮮半島情勢論—

2002年度在日朝鮮社会科学者たちの學術報告会(3日、東京・池袋・東京芸術劇場中会議室)では、『朝鮮半島 昨日、今日、そして明日—朝鮮半島情勢論—』と題したシンポジウムが行われた。訪東成・国際部長(朝鮮大学校助教授)の司会のもと、姜日天・研究企画部長(朝大講師)が『朝鮮経済の過去10年と経済強国建設の展望—サブババルから再建、強復への道—』、文光浩・朝鮮新聞社副社長が『北南共同宣言履行の現状と展望』、徐忠孝・総聯中央国際部副部長が『ブシ・政権と朝米関係の行方』をテーマに発言し、会場との質疑応答も交えて議論した。続いて、『哲学・政治』『経済・経営』『歴史・地理』『在日朝鮮人問題』の4分野別に討論会が行われた。

「実利」発想の新段階へ
試練を経て00年に大きな転換
管理原則は 社会主義固守

朝鮮経済

姜日天は、朝鮮経済の過去10年を振り返ると、その比較したところ、その現実に、まことに驚かされる。00年、金正日総書記が「朝鮮の発展は、先ず経済の発展にある」という言葉を述べた。これは、朝鮮の発展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00年、金正日総書記が「朝鮮の発展は、先ず経済の発展にある」という言葉を述べた。これは、朝鮮の発展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00年、金正日総書記が「朝鮮の発展は、先ず経済の発展にある」という言葉を述べた。これは、朝鮮の発展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

姜日天は、朝鮮経済の過去10年を振り返ると、その比較したところ、その現実に、まことに驚かされる。00年、金正日総書記が「朝鮮の発展は、先ず経済の発展にある」という言葉を述べた。これは、朝鮮の発展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00年、金正日総書記が「朝鮮の発展は、先ず経済の発展にある」という言葉を述べた。これは、朝鮮の発展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00年、金正日総書記が「朝鮮の発展は、先ず経済の発展にある」という言葉を述べた。これは、朝鮮の発展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

심포쥘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 조선반도정세론고 —



발언자 — 강일천 (조선대학교 강사, 사협중앙 연구기획부장)
문광우 (조선신보사 편집국부국장)
서충언 (총련중앙 국제국부장)
사회자 — 한동성 (조선대학교 조교수, 사협중앙 국제부장)

사회자; 올해는 조국에서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치는 역사적인 해이다. 새해 공동사설이 지적한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이 계속된 다음 지난해에 새 진격로가 열리고 공격진지가 마련된데 기초하여 올해에는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총돌격이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비약이 이룩될것이 충분히 예견된다.

한편 조국통일정세를 놓고 보더라도 북남공동선언 2 닢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지난해 부쉬정권의 등장과 9월의 테로사건, 그에 대한 보복전쟁이후 정세는 고도로 긴장되었으며 그것은 년말에 총련에 대한 정치적탄압이라는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최근 부쉬가 일반교서연설이라는데서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라고도 할수 있는 발언을 한 이후 정세의 긴장도는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오늘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단결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어 총련 19전대회결정관철에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오늘 심포쥬의 목적은 사회과학자들의 본분에 맞게 우리의 신심과 락관의 근거를 과학리론적으로 파고 들어서 찾자는데 있다. 그래서 심포쥬의 제목을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이라고 달게 되었다. 사회과학자들의 논의의 켤마로서는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켤마라고 생각한다.

먼저 오늘의 논의를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3명의 파넬라들에게 각 전문분야별로 《조선반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에 관한 키워드를 제시해 받고저 한다.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을 보는데서의 키워드 (Key word)

사회자; 먼저 조선대학교 강사이며 사협중앙 연구기획부장인 강일천선생님한테 듣고저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강일천;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조금전부터인 지난 10여년간을 본다면 어제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사버이벌》이고 현단계 (몇해전부터 최근까지, 그리고 앞으로 몇해동안의 짧은 미래까지)는 《재건》,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도약대에 올려세우는 미래를 《강성부흥-통일부흥》이라고 설정해 보았다.

사회자; 경제건설에서 어제가 《사버이벌》이라면 오늘은 《재건》이고 그리고 래일은 《통일강성부흥》이라는 발언이었다.

다음에 일관하게 통일문제를 추적하여 왔고 북남공동선언이후 대화와 교류의 현장을 직접 취재해 온 조선신보사 편집국부장장 문광우선생님에게 북남관계를 보는데서의 키워드를 물어 보자고 한다.

문광우 ; 오늘 북남관계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논의하고 해결할수 있는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키워드는 공동선언리행의 견지에서 관건적인 문제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인 견지에서 보면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수 있다.

사회자 ; 당면한 북남관계개선과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은 물론 조국통일의 근본문제자체가 《우리 민족끼리》에 있다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끼리》와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가 조미관계일것이다. 그러면 조미관계와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총련중앙 국제국부장인 서충언선생님에게 부탁한다.

서충언 ; 국제국에 오기전에 조선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런지 머리에 떠오른것은 미국의 역대정권을 보면서 조미관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에 《정, 반, 합》의 변증법-부정의 부정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사실상 조미간의 정부간대화는 부쉬의 아버지정권시기에 팀스피리트가 중지되고 김용순비서와 켄타차관의 회담이 이루어 졌던것으로부터 시작되어 클린톤정권에 들어가서 한 때 팀스피리트가 부활되고 전쟁직전까지 갔다가 그 말기에는 조미공동컴뮤니케가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부쉬정권의 등장후 과연 이와 같은 흐름이 《정, 반, 합》의 변증법으로 결속이 나겠는가 아니면 다시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사회자 ; 조미관계가 아버지부쉬정권시기, 클린톤정권시기를 거쳐 오늘의 아들부쉬정권시기에 이르러 부정의 부정의 변증법으로 결속이 나는가 어떤가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발언이었다.

이제 매 분야마다 키워드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 배경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파넬라들의 발언을 듣자고 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지난 10년과 경제강국건설 (강일천)

실마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것인가?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문건인 금년도 공동사설에서 찾아보자고 생각한다. 현행정책이 곧 어제와 오늘을 보는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레즈베에 있듯이 공동사설에는 《여러해째 어려운 난관을 겪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써여져 있다.

너무나도 <전환>이란 말을 오래동안 써와서 올해도 또 전환인가하는 생각도 들수

있지만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의 전환인가 하는것이 그 뒤에 있는 단락에 풀이되고 있다.

그것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다》는 구절이다. 즉 전면적공세에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전환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다.

좀더 대담하게 말한다면 공격진지차지에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방어진지를 지켜 왔다, 이로부터 공격진지를 차지했다, 이렇게 해석할수 있지않느냐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격진지를 차지하는 국면으로의 전환이 어째서 가능했는가? 그런것이 최근 몇해동안의 키워드, 또 사브키워드들을 통해서 짐작이 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인 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일떠 섰다》고 되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가능했는가 하는것이다.

그 수수께끼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분야에서 일어난 성과들을 자료 1 《2000 년과 2001 년의 경제전설성과비교》에 의거하여 간단히 확인하여 보자. (자료에는 지난해 성과를 오른쪽에, 그 전년도것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왼쪽에 얹혀 놓았다. 그리고 항목으로서는 주공전선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와 관련된 부분을 얹히고 기타 공업, 농업, 립업, 수산업, 국가예산, 남북교역 -이런 차례로 얹혀놓았다.)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은 없으므로 몇가지 특기할 문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례를 들면 전력생산이 이전보다 1.3 배로 확대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는 공업전반이라는 항목에 주목한다면 재작년에는 2,600 여개의 공장기업소가 연간계획을 초과수행했다. 연간계획을 달성했다는것은 곧 정상운영이 되었다,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해석할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9 월현재로 주요공장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5,100 여개공장이 정상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전해의 거의 2 배가 되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것, 이것은 지난해의 성과인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양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구절의 배경이 되는 수자라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의 계승이며 동시에 강성대국건설시기-선군시기의 새로운 투쟁기풍인 《라남의 봉화》로 대표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하여 가능했던 것인가.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실태라고할가 과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상정신적비결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과정을 해석하는 여기에 경제학적인 분석의 사명이라고할가 오늘의 심포슘에서 이 대목을 담당한 의의가 있지 않을까고 생각한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시사를 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련합기업소의 재편성》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0 년대후반기 (주로 99 년경) 부터 련합기업소가 해체되고 그

대부분이 2000~01 년에 걸쳐서 다시 연합화되었다. 이 사실은 내외에 적지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조국에 대하여 비교적으로 잘 아는 일본의 한 연구자는 연합기업소가 해체된 사실을 놓고 너무나도 국가적인 계획경제체제, 계획적관리체제가 기능을 잘 안하기때문에 계획경제체제에 손을 댈수 밖에 없어진것이 아닌가고 《분석》하였다.

추측하건데 국가적인 지령을 떨구어도 집행못한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말하자면 그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인 시장경제적방법으로 할수 밖에 없다, 즉 기업을 소위 독자적으로, 제각기 움직이게 할수밖에 없어진것이 아니겠는가하는 의미일것이다.

남조선에도 공화국관계연구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에 가까운 견해, 이제 계획경제가 기능을 못해서 해체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 년도 하반기부터 연합기업소가 재결성되기 시작한것이다.

시기적으로는 《고난의 행군》이 승리적으로 결속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2001 년도에 들어가서 재조직된 연합기업소들도 적지않게 있으나 우의 판단의 범위내라고 본다)

이로부터 저는 이것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하나의 경제적총화로 이해하고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또는 리유에 대해서 말해보자고 한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심각한 전기난을 겪은데 대해서는 누구나가 모를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공장들에 전기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최근에 나온 로동신문에서도 확인할수 있는 사실이지만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만 하더라도 평상시의 4분의1밖에 안왔다고 한다. 중요기업에서까지 그렇다면 그리 크지 않는 기업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방어진지, 사회주의보루를 지킨다는것이 경제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민들의 재산인 국가소유의 기업들을 지킨다는것, 그중에서도 생명선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 경제의 골간을 지킨다는—그 이외의 다른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돌리지도 못하는 공장, 또 가까운 앞날에 돌릴수 있는 전망을 내다 보기 어려운 기업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기계설비라는것은 돌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자연히 로후화해서 못쓰게되는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가슴아프지만 다른 방도를 모색할수 밖에 없다. 어떤 설비는 다른데 쓰고, 또 어떤 것은 파철로 판매하거나 해서 유용하게 처리하고 그래도 긴요한것, 골간적인 공장과 설비, 이것은 끝끝내 지키고 정상적으로 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추진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정상가동못하는 어떤 기업의 설비를 팔고 발전소의 타빈을 사옴으로써 다른 제철소를 돌리는 전기를 보장한 사실을 비롯하여 몇가지 우와 같은 과정을 암시하여 주는 소식들이 단편적이고 눈에 띄지 않은 형태로나마 보고되고 있다.

이 과정에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업관리운영의 방법론을 밝혀주시고 이것이 작년 10월3일에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가 되었다고 파악할수가있다. (자료 2 <당의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참조)

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제가 눈길을 돌린것이 작년 11 월부터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집중적으로 실린 경제론설들이다. 경제관련 특히 경제관리와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것을 최근 10 년동안, 또는 그이상 보지못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겠다고 생각하니까 우에서 소개한 《이어》의 글에 지난 10 월 3 일에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로작이 발표되었다고 나오고 있었다.

이야말로 강성대국건설의 현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방도를 밝혀주신 강력적문헌으로 평가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당면 마감을 지어야 하는데 끝으로 전망을 대신해서 《경제강국이 어떤 모습인가?》하는데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히 지적하겠다.

하나는 경제강국은 《통일부흥국》이라는것이다. 물론 조국통일의 방도가 두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자는것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은 제각기 진행된다. 그러나 남북이 공동으로 서명한 선언에는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만이 우리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상호공동의 인식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통일 부흥국이라고 그 전망을 내다보자고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건설되는 경제강국은 다른 하나의 측면은 《과학기술 강국》이라는것이다. 이것이 또하나의 경제강국의 미래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 깃든 정주년을 강성대국건설의 현 단계에 맞는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또는 새로운 전략을 밝히는 기한으로 설정하여 그것을 자기자신께 과제로 부과하고계시는것 같다. 그것은 우의 10월3일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대안의 사업체제 50 뉘을 2 달후에 앞두고 발표된데서 볼수있다.

이제 과학기술강국의 면모는 과학원창립 50 뉘에 즈음해서 꼭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이런면을 말씀드리면서 이만하겠다.

북남공동선언리행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문광우)

북남공동선언리행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북남공동선언이란 무엇이었던가를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아시다싶이 북남공동선언은 력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평양에서 상봉하시고 직접 서명하신 문건이다. 이 문건의 첫항에는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

고 지적되어 있다. 이것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고 기둥이며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니며 우리 민족의 의사는 통일에 있다. 그렇다면 나라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문제의 성격으로 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는것이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되어 왔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 외세의 간섭을 받는 조선반도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바로 북남 공동선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와 각오를 내외에 밝힌것이다.

북남공동선언은 국제적으로 랭전이 종식되고 조선반도에서 랭전종식, 통일문제의 해결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 때에 나왔다. 이 시기에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이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이 공동선언이다.

랭전이 종식되면서 조선반도의 《랭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있었다. 서방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논의된것은 흡수이다. 남에 의한 북의 흡수, 이것으로 조선반도의 《랭전》은 종식될것이라는것이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룬것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북은 무너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북이 무너진다는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러한 속에서 북과 남이 랭전해결방식에 있어서 흡수도 아니고 적화도 아니다, 북과 남이 힘을 합치고 통일을 이룩하는것으로 랭전문제도 해결하고 민족문제도 해결한다는것을 최고수뇌분들이 서로 만나고 토론하고 서명한것이 공동선언이라는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공동선언은 지난시기의 성명이나 합의문과는 다른 성격과 의미, 무게를 가지고 있다.

공동선언은 북남관계를 대결로부터 화해, 단합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북과 남은 적화냐 흡수냐, 먹느냐 먹히우냐 하는 싸움을 반세기이상 계속하여 왔다. 이런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손을 잡아보자 이렇게 한것이 공동선언이다.

실천적으로 말씀드리면 6.15 공동선언이 나오기전까지 북과 남사이에 여러가지 대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대화는 화해와 단합을 성사시키는것으로 되지 못하였다. 대화를 하더라도 싸움이 끊기지 않았다. 어느모로 보면 대화마당도 《투쟁》이였다. 적십자회담이나 총리회담에 나가 보았지만 싸움마당과 같았다. 지어는 6.15 공동선언이전에는 리산가족들도 마음놓고 만나지 못하였다. 이러한것이 전환된다는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천지개벽과 같다.

사실 6. 15 이후 북남관계를 보면 놀라운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화해와 단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니까 모든것이 달라져 왔다고 생각한다. 상급회담도 민간급회담도 또 보도가 되지 않았던 여러가지 접촉도 상당히 많은데 이전 시기에는 생각을 못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을 일으킨것이 공동선언이였다.

공동선언에서는 통일방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합의를 보았다.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시간관계상 전개를 하지 않겠다.

체제를 넘은 통일이 가능하다는것을 최고수뇌분들이 인정한것이다. 북에서는 80 년대에 이미 연방제방안을 제시하고 체제문제는 후대에 미룬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측은 이를 《적화기도》로 보고 대립했었다. 이런 경위로부터 보면 공동선언에서 방도 문제의 합의가 이루어 진것은 체제를 다치지 않고서도 통일의 길이 있다는것을 쌍방이 처음으로 인정, 합의한것으로서 공존, 단합의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것이다.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 진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먹느냐 먹히우냐 하는 싸움은 할 필요가 없어 졌다. 화해와 단합의 기반이 생긴것이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서는 부쉬정권등장이후의 어려움속에서도 민간과 당국사이의 각종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공화국에서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3 대호소, 3 대제의를 내놓았다. 3 대호소는 북남공동선언의 고수, 통일운동의 활성화, 장애요인의 제거이며 3 대제의는 올해를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정하고 공동선언발표 2돐이 되는 6 월 15 일을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 월부터 8 월까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기간으로 정하자는것이다.

3 대호소, 3 대제의의 뜻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자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부쉬정권의 등장이후 북남관계가 아주 어려워 졌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부쉬정권이 전쟁정책을 추구하고 대북강경정책을 펴는 이상 북남대화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고 피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남조선정권이 미국에 깊숙히 예속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알수 있다.

그렇다면 이 피할수 없는 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타개의 길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북남관계를 전환했는데 전환도상에서 부닥친 어려움도 역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타개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의 정권측에서 말하는 《한미공조》를 하는것이 북남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는듯하나 현실적으로 보면 의문이다. 부쉬정권의 행동을 보면 남측이 설사 그런 의도에서 《한미공조》를 활용하려고 하여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데서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다.

한말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데서 미국과의 예속적관계를 청산하는 방향에서 재구축할 요구가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이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치하면서 일을 벌이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한미공조》를 하면서 공동선언을 리행하자는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과 남조선의 관계에서 부쉬와 같은 강경정권이 태어 나면 끌려 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동족인 북과 손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15 이후의 과정을 잠시 돌이켜 보자.

레전대 경의선을 련결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제주도에서 국방장관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북측의 인민무력부장은 무슨 말을 하였는가? 《자, 경의선의 남측지역은 미군이 관할한다, 미국과의 관계는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남측의 국방장관은 미국에게 북과의 협상권만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북측이 좀 욕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거 북과 남의 철도를 잇는 일인데 미국의 관할하에서 련결하자는것인가라고 말이다. 그래서 욕심각심하다가 회담이 길어졌다. 결국 북측이 주 《한》 미군과 교섭을 하였는데 공화국은 미군에게 당신들은 이 지역에서 손을 떼라, 거기는 북과 남의 공동관할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철도하나 잇는데도 바로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남측은 이에 소극적측면이 있다. 공동관할구역문제는 원래 남측이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북이 나서서 해결했다.

북과 남사이에서 실지 일을 하자면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전력협력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남측은 전력협력문제를 포기하고 말았다. 왜 한발자국 나아가 미국에게 말을 못하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이 미국에게 깊숙히 예측된 관계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한편에서는 조미관계가 해결되어야 할것이고 한편에서는 남측에서 그러한 제한성, 틀을 타개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대화도 추진하면서 민간과 당국이 발맞추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타개하지 못할것이다.

물론 6.15 공동선언자체가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환을 이룩해 놓은것이고 또 민족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수 있으리라는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한것이다.

조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서충언)

하나는 조미관계의 력사적과정, 두번째는 우리 나라와 부쉬정권의 일련에 원칙적차이, 세번째로는 테로이후의 조미에 새로운 움직임, 마지막에 전망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자고 생각한다.

조미관계의 력사적과정을 보며는 크게 4가지정도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고르바초프의 쏘련과 미국이 령전해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국제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 나라가 평화보장 4 원칙과 포괄적평화제안을 88년 11월 7일에 제안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에 대해서 호의감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88년 11월 6일부터 베이징에서 참사관급 정부간접촉이 시작되는 계기이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92년 2월에 김용순, 켄타회담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환기이다.

둘째는 《핵의혹》과 그에 따른 《조미공동성명》 그리고 《조미기본합의문》 발표인데 이것이 두번째 계기로 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셋째로는 99년 5월 페리이전국방장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해서 《페리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서 본격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것이고 그 결실로서 2000년 10월에 《국제테도로에 관한 조미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뮤니케》 발표되는데 이것이 조미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선언이 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건 왜인가. 내용은 많지만 기본은 우선 남북간의 자주적인 대화과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둘째로는 조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합의보았을뿐아니라 이제 조미간은 적대관계를 해소했다, 적대관계가 아니라는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셋째로는 조미량국간의 여러가지 현안의 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하고 지난시기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조미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강령적인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실현될번하다가 결국 부쉬정권의 등장으로 해서 일시적좌절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처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부쉬정권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것을 살펴 보았을것인데 역시 부쉬정권이 안되겠다고 일정한 판단을 내린 계기가 언제였던가 하면 작년 3월 7일 김대중이 워싱턴에서 부쉬를 만났을 때 벌어진 상황이라고 본다.

김대중-부쉬 회담직후에 예정된 북남상급회담도 이결 계기로 중단되었고 또 이 회담, 상급회담이 중단된 다음날 하루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하여 비난하는 우리 나라의 크고 작은 성명이나 기사가 43건이나 나와 있다. 그전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는 이 회담이 상당한 계기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리유의 하나는 부쉬자체의 강견발언이다. 아는바와 같이 부쉬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은 믿지 못하겠다》느니, 《북조선이 지금까지 합의를 지켰는가 어떤가 의문스럽기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하면서 《당분간 조미간대화를 안하겠다》는 대화중단선언까지 했다.

뿐만아니라 김대중에게는 6가지사항을 강요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본내용은 첫째로, 6.15 공동선언을 반대한다는것, 특히 1항, 2항

에 대해서는 미국은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걸 암시했고 둘째로, 지금 미국이 북조선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대북정책을 재검토중이기때문에 조미관계를 넘어서 북남관계개선을 앞세워서는 안되겠다, 개선방향으로는 너무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셋째로는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현금을 주어서는 안되며 전력지원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전력은 전략적물자이기에 미국이 지금 KEDO 를 통해서 전력을 가지고 북과 협상하고 있는데 그 쪽에 유리하게 되는것은 주지 말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남북대화진전과정에서는 반드시 미국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바로 6.15 북남공동선언과는 반대되는 요구를 김대중에게 들이대고 또 앞에서 문광우선생이 말쑥하고 제셨지만 김대중은 힘관계로 보면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때문에 압력의 양해를 해서 돌아왔다.

우리 나라가 6.15 공동선언에 위반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것은 응당한 일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되어서 상급회담도 중단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부쉬는 3 개월후인 6 월 7 일에 갑자기 우리 나라와의 《대화재개선언》이라는것을 일일히 발표하게 된다. 부쉬가 《대화재개선언》을 발표하는 배경을 생각하면 하나는 3월 7일의 부쉬의 발언을 두고 상당한 정도로 미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올랐다는것이 있다. 제가 조사한데 의하더라도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그로브,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로스앤젤스 타임즈 등 주요신문들이 사설에서 부쉬를 비판했다. 이렇게 비난이 많았기에 역시 대화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정권이 교체되었기때문에 대북외교안보팀이 아직 3 월초시점에서는 구성안되어 있었는데 6 개월이 지나감에 따라 대체로 팀이 구성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을것이고 또 하나는 부쉬정권내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완전한 정책적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어서 이번에 대화를 재개하자고 선언했는데 문제는 그 본질적 내용인데 그것은 대화는 하겠다, 그러나 대화에서의 요구조건은 높이겠다는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밝히지 않고 있는데 참고로 할만한것은 6 월 30 일에 있는 부쉬와 고이즈미일본수상사이의 회담이다.

요미우리신보 작년 7월 2일부에 나왔는데 부쉬는 회담석상에서 《그는 믿을수 없는 사나이이다. 자기 나라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지도자는 믿을수 없다》, 《북조선이 미국뿐만아니라 주변나라들의 신뢰를 받는 나라라는것을 과시하지 못하는 한 쉽게 합의하지 않을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의 조기실시와 미싸일개발억제의 검증조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해 나갈것이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대화는 하지만 요구조건을 높이고 쉽게 합의는 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를 합의를 위한것이 아니라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 나라가 도저히 접수할수 있는 차원의 제기가 아니였다고 할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했고 또 미국측이 리행해야 할 약속, 레전대 경제제재의 해제 등을 리행하지 않으면서 핵사찰을 다시 강요하려고 하고 있는것이다.

부쉬도 조미기본합의문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조미기본합의문속에서의 제일 마지막사항의 문구를 외곡하여 핵사찰의 조기실현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사항에서 우리 나라가 2003년까지 경수로가 건설되기 전에 특히 그 핵심부분이 건설되기 전에 핵사찰을 받아들인다고 약속했듯이 외곡하면서 부쉬는 핵사찰을 마칠때까지 3~5년 걸리기때문에 핵심부분을 건설하기전에 핵사찰을 마치자면 이제부터 빨리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경수로의 상당한 부분이 건설된 다음 그리고 핵심부분이 건설되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의 문장을 무시해서 빨리 핵사찰을 받아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것이다.

또하나는 미싸일문제인데 미싸일은 수출, 개발을 중지하고 배비된 미싸일도 포기할 뿐만아니라 포기했는가 어떤가를 검증시키라는 전방진소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상용무기도 삭감하라는 식으로 나오기때문에 우리 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립장은 명백하다. 《대화는 이전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문제들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조미공동공표문》을 재확인해서 거기서 출발해야지 거기에 없는 사항인 상용무기의 삭감문제까지 의제로 한다면 주한미군철수도 같이 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립장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10월에 후가이도의 국제회의에 참가해 봤는데 거기서 한 로씨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소장의 발언이 참고로 될것이다.

그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친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하시고 발표하신 공동선언에서는 우리 나라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데 대해서 로씨야도 리해를 표시했는데 만일 부쉬정권이 상용무기삭감문제를 제기안했더라면 이번 조로공동선언에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안들어갔을것이다. 결국 부쉬가 지금까지 조미간에서 합의해본적도 없는 무리한 문제제기를 했기때문에 조선도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수 없게 된것이다. 부쉬가 상용무기삭감문제를 제기안했더라면 그 사항은 안들어갔을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것을 보면 대체로 상용무기삭감문제를 제기한다면 주한미군철수문제도 같이 논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라고 추측된다.

이번에 미국에서 동시타발테로사건이 일어나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좋은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 나라가 사건이 있는 직후에 즉각 반테로성명을 내고 테로와 그 지원도 반대한다는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우리 나라에 있는 미국의 리익대표부를 접하고 있는 주평양 스웨리에대사관을 통하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문건으로 정식으로 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국무성에서는 우리 나라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화를 하는 등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것이다.

또한 작년 11월에 조선반도담당특사로서 자크 프리차드가 임명되고 우리 나라에 10만 5천톤의 식량지원을 할것이 결정되었으며 2002년도에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할 예산도 확보되었다. 그리고 찰즈 카트만 KEDO 사무국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고 최근에는 파월국무장관이나 존 케리 아세아태평양담당차관보, 하버드주남조선대사 등이 대화를 신축성있게 하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시하게 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1월말에 있는 대북조선정책조정그룹회의(미,일,남조선의 담당국장급회담)에서는 부쉬가 2월에 남조선과 일본, 중국에 가게 되면 우리 나라와의 대화재개에 립하는 보다 신축성있는 립장을 표시하게 될것이라는 말이 돌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반교서연설에서 부쉬는 이라크와 이란과 함께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락인찍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으로서는 첫째로 9월 30일에 나온 4개년국방전략재검토(QDR)라는 보고서가 있다. 그 기본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하나는 140만명의 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것, 둘째로는 미군의 해외배비를 유럽부터 아세아태평양으로 이동하겠다는것, 셋째로는 지금까지 《두가지점면전략》, 즉 두개지역에서 전쟁을 동시에 진행하고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전략을 포기해서 One plus 전략, 즉 한개지역에서의 전쟁의 결정적승리와 함께 또 하나의 지역에서는 현상유지 혹은 부분적개입으로 치우는 전략으로 전환하되 그 대신 미싸일방어체계(MD) 즉 자기 나라 본토에 미싸일방위망을 설치한다는것이다.

부쉬정권은 지금 테로를 리용해서 이진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에 가담하느냐, 안하느냐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 가담안한다면 모두 적이다, 이렇게 건방진소리를 하면서 전략을 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반테로련합의 공격대상을 명백히 해야 하는데 이번 교서에서 그것을 했다. 우선 테로조직, 테로자체, 테로지원금, 그리고 미싸일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반미적인 나라들이라는것이다. 즉 테로를 리용하여 반테로련합의 공격대상을 확대한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가, 리유는 단순하다. 테로와 테로조직만이라면 미싸일방어체계(MD)는 필요없다. 이번에 뉴욕에서의 습격사건을 보더라도 미싸일방어망같은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것인가 하는것을 오히려 세계에 시위를 했다.

그런데 부쉬는 MD를 하고 싶은것이다. 아무래도 국방예산을 늘이고 MD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테로와 테로조직뿐아니라 미국본토에 미싸일공격을 할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필요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까지 포괄시킨것이라고 추측할수 있다.

두번째 배경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언급하고 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부쉬가 이번 교서연설에서 《악의 축》에 우리 나라와 이란을 포함시킨데 대하여 부쉬정권내의 일부에도 큰 놀라움을 주었는데 이는 대이라크 강경로선을 취하는 국방성의 의향을 반영한것이며 이렇게 보면 국제사회와 협조하려는 파월국무장관등의 국무

성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사를 보는 한에서는 이번에 교서연설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던가, 또 그후에 람즈펠드, 라이스 등 강경파가 교서연설에 대한 지나친 주석을 붙인 강의를 하고 있는것을 보더라도 국방성과 백악관내의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이번 교서연설의 최종원고를 만들었다는걸 알수 있다.

부쉬정권내의 대조선정책의 불일치를 드러낸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3월 7일에 김대중과 부쉬가 워싱턴에서 회담하기 직전에 파웰과 부쉬사이에 의견상이가 드러났다. 회담전날에 있는 스웨리에의 외무상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파웰국무장관은 《우리는 빌·클린턴전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중단한곳에서 시작하기 위하여 북조선과 접촉 하겠다》고 했는데 부쉬는 앞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김대중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그와 반대되는 말을 했다. 그래서 파웰은 7일에 있는 공청회에서 부쉬에 맞추어 자기 발언을 수정하였다.

이때로부터 부쉬정권내에 불일치가 계속 있었다고 볼수 있고 그것이 이번 교서에서 반영되었다고도 볼수 있다.

부쉬정권도 사실상 우리 나라와 대화를 계속할 자세는 있으면서도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한 부쉬가 내놓은 일련의 대화조건들을 보면 그 기초에는 현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차관을 하고 있는 아미티지와 월포윙츠가 《페리보고서》에 대항해서 만든 보고서가 생각난다.

페리보고서는 실질적으로는 99년 5월에 기본적인 내용이 작성되었는데 그 3개월전인 2월 26일에 아미티지와 월포윙츠가 중심이 되어 《아미티지보고서》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대북정책을 만들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부쉬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딱 맞는다. 바로 이 보고서가 현부쉬정권의 대북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금후 조미관계의 향방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다면 미국은 결국 우리하고 싸움은 못할것이다. 강압적인 자세로 오지만 우리 나라는 제2의 이라크도 안될것이고 아프가니스탄도 안될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장군님두리에 모든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적위력과 특히 막강한 군사력앞에서는 절대로 쉽사리에 걸거들지 못하기때문이다.

군사분계선에 따라 자리잡고 있는 우리 포대들이 한시간에 50만발의 포탄을 주남조선미군머리우에 떨어줄수 있다는것을 미국놈들이 제일 잘알고 있고 또 제일 무서워하고 있다. 가장 희생을 무서워하는 미국놈들이 이러한 우리 나라에 함부로 덤벼 들지 못한다는것은 명백하다.

또한 국제환경도 상당히 변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구도가 변했고 아는바같이 조선전쟁 때 미국에 추종해서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한 21개 나라들속에서 지금 우리 나라와 국교를 안맺고 있는 나라가 2개만이다. 미국과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이제 내정되었는기에 시간문제이다. 중국과 로씨아와의 정치, 경제, 군사적관계도 아주 긴밀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이제 미국에 남은 길은 대화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가 부취의 교서연설에 대해서 《전전포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상당히 냉정한 태도로 립하고 있는것은 그럴만한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질문 ;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문제를 앞으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중요고리로 제기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한다.

강일전 ;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완성의 기본방향이라고 명백히 적은것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있는 방법을 찾아내는것》이다. 그런데 다른 론설에서는 (말씀에 기초해서) 《종자》라고 되고 있다.

최근시기 모든 분야에 장군님의 종자론을 구현하는것이 하나의 기본방향이 되고있다. 그래서 농업혁명부문에서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수확이 많은 종자를 개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고있는데, 경제관리에서는 무엇을 종자로 잡겠는가, 그것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기업관리방법을 찾아내는것이다.

질문 ; 올해 공동사설의 경제관리방법개선부분에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가져올수 있도록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것인가?

강일전 ;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와 같은 개혁, 개방은 안한다》는것이라고 리해하시면 좋을것이다.

조금더 짚어서 말하면 《경제관리에서의 사회주의원칙》이라 할 때에는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정책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국가의 경제적지도를 배합할데 대한 문제, 국가경제기관의 중앙 집권적,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면서 매개 단위의 창발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의사결정에서 민주주의를 백방으로 발양하면서 집행에서의 유일적지휘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로동에 대한 자극에서 정치도덕적자극을 우선시키면서 거기에 물질적자극을 배합시킬데 대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질문 ; 공동사설은 《올해를 조국통일에서 전환적인 국면을 여는 해로 되게 하자》고 지적하였는데 《전환적인 국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문광우 ;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구체적인 과업으로 공동선언을 고수하는것은 물론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것을 호소하면서 민족적단합을 촉진시키며 6.15 를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운동을 활발하게 벌리자는것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6.15 를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하자는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전환을 가져 오자는것과 밀접히 련관된다고 생각한다. 상징적으로는 공동선언을 리행 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울방문같은것이 과제로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은 아주 비현실적으로 비쳐지는 일인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이르자면 조미관계추이도 관련이 되고 특히 북남관계에서 당국, 민간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할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장애요인들 즉 법적인 제도같은것들을 어떻게 제거해나갈수 있는가, 이러한것들까지 념두에 두고 제기되었지 않는가고 생각한다.

질문 ;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얻어낸다, 그런데 《개혁개방》은 안한다는것인데 지난해에 공동사설이 나왔을 때 일부 사람들은 《신사고》가 아닌가, 《개혁개방》이 아닌가고 하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시에도 같은 소리가 나왔다.

여기서 의문으로 남는것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것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립장만이 아니라 사실을 놓고 론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청년영웅도로주변을 비롯하여 남조선기업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갈수록 들어올것이 예견된다고 한다.

우리가 민족끼리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것은 개혁개방인가, 아닌가? 교통정리 해주면 좋겠다.

강일천 ;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하였기에 모호하게 대답하기 어렵게 되었다.

올해 공동사설에는 《경제관리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대가리글자를 보면 개선의 《개》자와 혁명의 《혁》자, 즉 《개혁》이다. 그러나 《개혁》이라고는 안한다.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원래 의미에서는 개혁이라 말해도 나쁠바는 없다. 사실 혁신적인 개선, 혁명적인 개선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개혁》이 가져오는것은 체제전환, 부르쥬아화, 예측화 등이다. 또한 《개방》이라 하게 되면 지난시기 스스로 패쇄한것으로 된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패쇄해본바는 없다, 너희들이 봉쇄했다, 봉쇄를 풀어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와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개방하자고 하고 있다》는것을 강하게 전하기 위하여 《개방》이란 말을 안쓰는것이다.

원칙은 물론 형식이 아니다. 사회주의원칙대로 하는것이 더 실리가 크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론설들속에서도 《일군들은 경제관리를 제대로 개선완성하는데서 사회주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신념부터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적방법에서 묘술을 찾을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신념》, 《이 원칙대로 하는것이 최대의 실리가 나오는 길이라는데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

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내 놓았는데 물론 현실에 맞게 개선완성해나가야 하지만 그 원리, 원칙대로 해서 못한다면 무엇때문에 사회주의를 하겠는가, 이러한 배짱이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집단주의원칙에서 실리가 나온다는것이다. 그 어떤 개인의 리기심을 자극하면서 수자를 올리는것이 실리인가, 나라의 부강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이 실리이기때문에 일부 사람이 돈을 버는것이 우리가 말하는 실리는 아니다는것이다.

질문 ; 3 대호소, 3 대제의가 나왔는데 올해 6.15와 8.15가 통일운동에서 하나의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는 정세가 호전될수도 있고 악화될수도 있다고 본다. 남조선정국을 보면 류동적요소가 상당히 많은 속에서 당장 확정하기는 어려울것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조국에서 진행되는 《아리랑》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며 6.15, 8.15와 《아리랑》의 관계는 어떠한가?

문광우 ; 《아리랑》이 어떻게 제기되었는가는 다 아실것이다. 아직 정리된것은 없으나 주관적으로 말한다면 《평화와 민족단합의 축전》으로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과 남, 해외까지 포함한 온 민족이 받아들일수 있는 《아리랑》이란 형태로 일대축전을 벌리는것이 지금 조선반도상황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평화의지, 단합의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커다란 정치행사의 성격을 띠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남관계로 보면 이것을 기회로 공동선언이후 벌려 온 화해단합으로 북남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교류를 민간뿐아니라 당국사이와 민간사이를 포함하여 질적으로도 량적으로도, 결정적으로 전진시키는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6.15, 8.15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조미관계를 고려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수 있겠는가 어떤가에 공동선언에 있는 서울방문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되는가 어떤가가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의의가 큰 행사로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과정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하였다고 보는데 사버이벌부터 최근시기에는 통일부흥으로 나가고있다는 총화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을 놓고 우리 나라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기와 나빴던 시기의 경기곡선과 같은 상승과 하강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재작년에 조국갔을 때 들은 이야기로서는 그것이 대체로 80년대말이라고 하고 있었다. 식량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가 95년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사실상은 그 이전부터 필요생산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경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겠는가?

강일전 ; 경기곡선이라 하겠는지 어떤지? 말하자면 생산 또는 경제규모의 곡선,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의 시기와 그 리유라고 생각한다. 농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79 년 혹은 84년에 900만톤이라는 수자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 아마 수해가 있었을 때까지 발표가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그것으로 루추해 주면 좋겠다.

사회주의시장이 붕괴된 후 94 년에 혁명적경제전략이 제시되었는데 기존의 경제를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그대로 돌릴려고 한것이 아니었던가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군사적봉쇄속에서 사회주의보루를 지키느냐 어쩌냐 하는 문제가 그 무렵부터 첨예하게 제기가 되었고 《어떤 환경하에서도 살아 남을수 있는 경제》라는 사버이벌이라 볼수있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혁명적경제전략에는 2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환경하에서도 살아 남을수있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 다른 하나는 경공업, 농업, 무역제일주의로 나가서 경제구조를 전환한다는것이다. 여기서 뒤에 말한 구조전환은 소련붕괴이후 라진선봉을 비롯한 대외관계로 배우려고 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제정세가 그를 허용해주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97 년이후 주로 자력으로 경제를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 중요한 에포크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시범강행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건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제 1 차회의에서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에서 다른 방법에서 묘술을 찾는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획경제로 간다는것이 뚜렷이 밝혀졌다.

그 직후인 98년 9월 21 일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 계획경제와 자립경제의 2 가지기둥을 명백히 선언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버이벌에서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방도라는것이 뚜렷이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하강곡선이 '99 년, 2000 년에 조금 상승으로 향했다고 전해 지게 된다. 물론 그 사이에는 쌀을 비롯한 지원이 있었고 여러 기금의 협조안전이 있었고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수입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질문 ; 지난시기 10 년간 경제건설과정을 보면서 경제관리를 새롭게 개선할데 대한 정책에 따라 개선이 추진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시기 교훈이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강일전 ; 자력갱생과 결부시켜 몇마디만 하겠다.

그전의 자력갱생은 좀 투박해도 우리 힘으로,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것이였다.

최근시기 이와 결부해서 중요한 지도가 있었다고 본다. 최근의 자력갱생은 투박하

면 우리식으로 하지 말라, 잘못하면 우리가 하지말라, 자력갱생은 현대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만 한다, 실리를 주는 자력갱생만 한다는것이다. 극단히 말하면 실리도 못하고 현대기술에도 의거하지 못하면 자력갱생 하지말라는것이다. 그것을 실현하는데 경제관리방법을 복무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 공동사설에서 《21 세기 사회주의》란 말이 나온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20 세기와 다르다는 뜻이 아닌가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21 세기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심중히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강일전 ; 세계사적인 개념으로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크지만 21 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총화와 그 교훈에 기초한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21 세기초에 와서도 제국주의가 란리를 부리고 있는데 20 세기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속에서 여러모로 영향을 받아 다방면적인 발전에 지장을 받은 사회주의였다고 본다.

그러나 새 세기에 제국주의가 오래 가리라고는 볼수 없다. 제국주의를 극복한 단계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충언선생님에게 질문을 돌리고 싶다.

미국이 9.11 사태이후 발악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수밖에 없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봉쇄하고 뚜껑을 하고 생억지를 쓰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갈것같은지는 않지만 어떤가?

또 엔론문제도 있는데 부쉬정권자체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서충언 ; 질문에 감사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레컨데 9.11 습격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상 유니라테라리즘에 기초하여 자기만 좋으면 좋다, 자기 리익에 맞지 않는 조약, 국제기구, 회의에서는 다 탈퇴한다는 부쉬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평판이 나빴을뿐아니라 미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만회하고 있는셈이다. 부쉬가 일반교서연설을 했을때 민주당, 공화당이 다 있었는데 외교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다 일어서서 박수했는데 경제정책부분은 민주당이 박수안했다고 한다. 부쉬의 외교정책에 대해 《이래서는 안된다》고 비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특파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게 된 계기가 이번 연설에서의 《악의 축》 발언이다. 1 차대전시기 日, 獨, 伊 3 국에 대하여 쓴 표현인데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 부러 썼다. 이에 대해서 《이라크는 알수 있어도 왜 이란, 북조선까지 넣는가, 그래서 안되지 않는가》하는 비판이 남조선에서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유에스투데이, 영국의 화이난살타임스, 인디펜덴스, 가디언 등에서도 비판이 많다. 특히 AP 통신은 《이 연설을 통해 서유럽으로부터 로씨야, 남조선에 이르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균열이 생길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까지 하고 있다. 알브라이트역시 비판하고 있다.

특히 로씨야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NATO 도 《NATO 는 이란, 이라크, 북조선에까지 반테로전쟁을 확대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는 방조안하겠다》고 사무국장이 말하고 있다.

이런것들을 보면 테로사태이후 미국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지 않을수 없었던 분위기가 있었고 미국은 상당히 무리를 하면서 지지를 받아왔는데 이 연설에서 이란, 공화국을 포함시킨것을 계기로 오히려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다시 그전과 같은 비판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엔론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엔론은 180 조달러의 장부상부채가 있으며 그밖에도 230~ 260 조달러나 부채가 있다. 사실 이 때문에 도산했는데 이것을 부쉬를 비롯한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얻어먹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아마 상당한 정도로 검사가 들어갈것이다. 지금 공표되어 있는 정치헌금만하더라도 행정권의 각료급, 차관급속에서 15 명이나 공식적으로 받고 있었다. 그러면 장부외부채의 돈은 누가 받았는가? 여기에는 아직 검사가 안들어가 있다. 이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부쉬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수 없다.

《잘 짓는 개일수록 약하다》고 하지만 바로 지금 부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정, 반, 합》의 변증법으로 본다면 아버지부쉬로부터 클린턴을 거쳐 오늘의 아들부쉬정권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좋은 나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오게 될것이다.

하나 2003 년이 경수로마감이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EU 대표단에게 공표하신바와 같이 조미대화가 계속되고 있는한 2003 년까지 미싸일실험을 동결하겠다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핵문제와 미싸일문제를 같은 시기에 결부시킨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느냐 어떠냐가 문제인것이다. 2003 년의 1 월 1 일인지 12 월 31 일인지는 확정할수 없으나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할것이다. 혹 부쉬가 천지도 모르면서 지나친 소리를 계속한다면 2004 년에 무한히 가까와 질수도 있다. 현실을 잘보고 움직인다면 덤비지는 못할것이다. 따라서 2003 년에 결론이 나오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참다운 《합》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잘못하면 또 하나의 최대의 위기가 올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때가서든 반드시 결론은 나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배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조국은 배짱이 있고 할 때는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국은 빈말을 안한다. 우리도 조국과 함께 투쟁함으로써 함께 기뻐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

다.

질문 ;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울방문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실현가능성이 적게 보이지
만 올해가 결정적인 해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 《실은 작년 5 월에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의 부쉬가
방해했다》는 정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문광우 ; 일관해서 지적되어 온것은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위한 환경이 필요하
는것이였다. 그래서 예전된것이 대체로 지난해 5,6 월이였다는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
다. 단 구체적인 계획단계까지는 안갔을것이다.

가능성은 엄연히 있고 어떤 환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지금 일부에서, 특히 《조선일보》 같은데서 《김대중이 2 차정상회담을 금강산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안시키겠다》는 말이 돌연히 나돌고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수뇌분
들이 다시한번 만나는데 대하여 우익반동세력들이 경계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북남관계를 타개하는데서 서울방문문제라는것이 하나의 커다란 이슈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 원래 우리의 신념과 략관의 근거를 찾아 보자는것이 목적이였는데 그것이 어
느정도 달성되였는가는 참가자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자고 생각한다.

단 조선반도의 어제와 오늘에 기초하여 래일을 생각하는데서의 초점,고리가 무엇인
가 하는것은 뚜렷이 제시되였다고 본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협
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연구회같은것을 많이 하고 그 성과를 내외에 널리 선전
하는 사업을 벌릴 필요가 있을것이다. 앞으로 사협중앙에서는 서서히, 그러나 눈에 띄
게 자기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결심이다.

끝으로 바쁘신속에서 귀중한 발언을 해 주시고 가치있는 자료까지 제공해 주신 세
분의 파넬라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끝)

자료 1 2000 년과 2001 년의 경제건설성과비교

분야/부문	2000 년 ~ 《조선중앙년감 주체90(2001)년판》 (2001.10 발행에 의거)	2001 년 ~ 주체 91(2002)년 신춘강연회 강연자료(1)에 의거~
전반적평가	강성부흥을 위한 경제적토대를 쌓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한해였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하고 전면적인 공세에로 나아가게 되었다.
전력공업관련	수십만 KW 의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	전략생산을 이전보다 1.3 배로 확대
석탄공업관련	1,400 여대의 탄광설비를 원상복구	
금속공업관련		주체적제강법에 의한 6 만톤능력의 용광로를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건설
철도운수관련	80KM 구간의 철도전기화 130 대의 기관차와 16,500 대의 차량을 정비	화차, 객차생산 종전보다 1.5 배로 늘어났다 *철도수송계획을 전년동기비 122.4%수행(2001.10.30 조선중앙통신)
기타공업관련	5,100 대의 트랙트르와 농기계를 원상복구	*전자공업성 연간생산액계획을 107.1%로 수행(2001.12.4 민주조선)
공업전반	2,600 여의 공장, 기업소가 년간계획을 초과수행 공업총생산액 지난해의 1.1 배로	9 월현재 주요공장의 3 분의 2 에 해당하는 5,100 여개의 공장이 정상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농, 립, 수산업	· 15 만 5 천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 · 양어장의 총면적이 6,500 정보로	· 두벌농사면적이 20 만정보를 초과 (지난해는 17 만 4,500 정보) *근 1,000 정보의 양어장을 새로 건설 (2002.1.4 조선중앙통신)
국가예산	국가예산수입계획(204 억원)을 2.4% 초과수행 지방예산수입계획을 24.1% 초과수행	
남북교역액		3 억 6,268 만 2 천 US 달러
기 타	[2001 년] · 년간소금생산계획을 104.7%로 수행(2001.10.22 조선중앙통신) · 상반기대외무역총액이 15 억 1 천만 US 달러로 전년동기비 78.6%증가(KOTRA 《2001 년상반기 <북한> 의 대외무역현황과 특징》, 2001 년 12 월)	

자료 2 당의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2 달동안의 경제문제관련 론설 및 기사

날자	메체 및 제목등	인용된 명제와 특징적인 구절 또는 내용
2001 11/04	로동신문 《사회주의로동생활기 풍》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은 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근로자 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로동생활기풍입니다.》 ※로력조직사업을 짜고 들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잘 보장하여 주는 문제
11/11	로동신문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그 우월성은 나라의 모든 경제작업재력을 통 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최대의 경제작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11/13	로동신문 《경제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경제의 생명 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는 경제분야에서 당의 유일령 도를 실현하는 국가경제기관들의 기본사명이며 사회주의경제의 생명선입니 다.》
11/14	로동신문 《인민경제의 현대화 와 공업의 기술적개 진》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공업의 기술적개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 다.》 ※공업대상을 새롭게 현대화하는 적극적방법과 현존대상을 부분적으로 현대화 하는 방법을 잘 배합하여 실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1/17	로동신문 《공장, 기업소조작에 서 전문화의 원칙》	《공장, 기업소들을 생산을 전문화하는 원칙에서 조직하고 발전시키며 경제부 문들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련계와 협동을 강화하도록하여야 합니다.》 ※생산을 전문화하고 협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불합리하게 꾸려진 지력갱생 기지들을 점차적으로 정리
11/18	로동신문 《질적지표계획과 경 제관리》	《기술경제적지표계획, 특히 원가, 리윤, 재정계획을 현실성있게 바로 세우고 그 집행에 대한 중화평가사업을 엄격히하여 생산과 건설의 경제효과성을 높 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적지표는 오늘 실리를 확고하게 담보하는 중요방도
11/21	로동신문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 칙적요구입니다.》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신작업, 발전적전자에서 보고 대하야 한다.
11/22	민주조선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 나가는데 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중점》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점은 사 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 결하는것입니다.》 ※변화된 환경과 오늘의 현실은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나가는 여기에 경제강 국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1/23	민주조선	제목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

11/24	민주조선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는 국가경제기관들의 기본 사명》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는 경제분야에서 강요의 유일한 정도를 실현하는 국가경제기관들의 기본사명이며 사회주의경제의 생명선입니다.》
1204	민주조선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요구》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로동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이며 변화된 현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일시적으로 여유로력을 다른 작업에 동원하는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이를 계화, 조직하여야 한다. 로동보수와 분배몫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법분배방법을 연구도입하여 사회주의로동보수제를 더욱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1208	민주조선 《사회주의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옹계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곧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나가는 길이며 경제건설에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 국가의 통일적지도, 집단주의적경제관리방법
1209	로동신문 《나라와 인민에게 실제적인 리익을 주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적으로나 개별적부문 단위들에서나 생산과 건설, 기업관리운영을 가장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여 나라와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리익을 주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입니다.》 ※복라증진과 합리성수자산의 결합, 전망적리익을 선차사하고 이에 당면한 리익을 결합
12/12	민주조선	제목 《3 우월체》
12/15	로동신문·민주조선	대안의 사업체계창조 40 돌 중앙보고회에서 한 한성룡비서의 기립보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2002 01/06	민주조선 《경제와 과학기술을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원칙》	《경제와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키며 과학기술으로 발전시키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발전수준이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도
2002 2월	이이 『金正日總書記と強盛大國へ經濟強國建設への青写真〜』 p 55-57	「…金正日總書記は『強盛大國建設の要求こそって社会主義經濟管理を改善・強化することについて』と題する勞作を發表、社会主義的の原則を守りながら大きな美利を生む經濟管理方法『ウイ朝鮮版』への転換を示した」☆

* 2001.11.4~2002.1.6 까지 경제론설 15 편(로동신문 8 편, 민주조선 7 편)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주체 90(2001)년 10 월 3 일로작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의 주요내용을 구성할것으로 지목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여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조건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신 력사적인 문헌으로 평가될것으로 보인다.

- 종자 :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문제
- 경제관리에서 당의 령도,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3 위일체를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
- 국가의 계획적경제관리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를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문제
-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와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키며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도 관리도 진행하는 문제
-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로동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한 문제
-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로동보수제를 새롭게 개선완성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

〈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穀物需給状況（1995/96～2001/02 年度）

〔単位：万トン〕

		穀物 需 要	食糧 需 要	推 定 生産量	需給差	搬入量	節約分	不足量	被害
1995 ～96	DPRK ¹	763.9		376.4 349.0 ²	387.5			197.4	190.1
	FAO/WFP ³	598.8		407.7	191.0	43.0	44.0	104.4	89.0
	統一院	673.0		345.2		96.0 ⁴	95.0	173.0	
1996 ～97	DPRK	784.0	482.0	250.2				183.0	
	FAO/WFP			283.7					
	KREI ⁵	606.1 ～622.6	438.6 ～449.0	244.7 ～281.7 ⁶					
1997 ～98	DPRK	783.9	482.9	268.5				210.0	
	FAO/WFP ⁷	461.4 467.4	387.4 —	266.3 283.8				195.1 183.6	
1998 ～99	DPRK			283.1 ⁸					
	FAO/WFP ⁹	483.5	392.5	348.1				135.4	
	統一部			330.0				130.0 ～150.0	
1999 ～ 2000	DPRK			428.0 ¹⁰					
	FAO/WFP ¹¹			347.2 342.1					
	KREI ¹²	657.0	498.6	340.0 ～386.0	271.0 ～317.0				
2000 ～01	FAO/WFP ¹³			257.3				200.0	
2001 ～02	FAO/WFP ¹⁴	501.1	392.9	354.4	146.7				

注：年度は、11月から翌年の10月まで

¹ 国連人道問題局が1995年9月12日に公表した「DPRKの水害に関する国連調査報告書」による

² 下段の349万トンは、DPRK 水害対策委員会スポークスマン

³ 1996年5月発表

⁴ KOTRA 発表

⁵ 韓国農村経済研究院

⁶ 統一院推計は、369.0万トン

⁷ 上段は1997年11月発表、下段は1998年6月25日発表

⁸ 1998年11月24日、新華社が共和国の新聞報道として伝える

⁹ 1998年11月12日発表

¹⁰ 1999年11月16日、FAO総会での朝鮮農業省副相演説（初付きの数値）

¹¹ 1999年11月8日発表、下段は2001年10月26日発表のものによる

¹² 1999年10月27日発表 報告書「99年度北韓作況及び食糧需給展望」

¹³ 2001年10月26日発表

¹⁴ 同上

수령을 노래한 재일조선문학의 사상주제적특징

조선대학교 교수 손지원

재일조선문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동포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애국운동으로 불러 일으키는 데 힘 있게 이바지하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재일조선문학이 거둔 성과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이다.

해외교포문학예술로서의 재일조선문학예술은 그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내용에서 철저하게 사회주의적이며 애국주의적인 문학예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

《우리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으로 빛내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과 잇닿아 있습니다. … 충성은 곧 애국입니다.》(《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 46 페이지)

애국심은 충성의 마음과 잇닿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는 우리 시대의 애국심은 본질에 있어서 충성심이며 수령에 대한 충성이야 말로 최고의 애국이라는 사상이 깃들여 있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 총련의 존재와 재일조선동포들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재일조선작가들은 지난 기간 동포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간직된 애국의 붉은 마음, 충성의 한마음을 문학작품에 담았다. 수령형상작품은 주로 시가창작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수령찬가는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론문은 수령형상시가를 개괄하고 작품의 사상주제적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사상성, 정치성이 높은 경지에서 구현된 재일조선문학을 분석,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노래한 시가작품

1) 개괄

재일조선문학의 특징적인 성과는 총련의 조직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재생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노래한 시문학이 찬란히 꽃 핀것이다.

해외조선동포들은 조국을 생각할 때 곧 수령님을 생각한다.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고 수령님은 곧 조국의 품이기때문이다.

광복전부터 재일조선동포들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못내 그리워 하였다.

보천보의 밤 하늘에 타 오른 화불은 나라 잃은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강제 징용, 징병으로 끌려 와 이국을 헤매이던 재일동포들의 가슴에도 광복의 서광을 비쳐 주었다.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전해진 김일성장군에 대한 이야기에 접할 때마다 암흑속에서 해빛을 만난것처럼 그이를 우러러 동포들은 투지와 용기를 가다듬었으니 관부련락선 객실천장에 《조선독립대장 - 김일성》의 글발이 새겨진 사실(특고월보 1944.4)은 결코 우연

한것이 아니다. 재일조선인은 강도 일제와 맞서 싸우는 항일유격대를 돕기 위해 등사사판을 사 보냈으며(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3권 108 페이지) 일본 도쿄에서 배우던 우리 학생들이 장군님의 전사가 되겠다는 불타는 한가슴을 안고 간도로 떠났다고 한다. 축지법을 쓰시고 일제를 타도하시는 희세의 영웅을 그려 보며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채득한 재일동포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열렬히 칭송하였다.

1948년 9월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수령을 노래한 작품은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창건의 소식에 접하여 사선을 헤치며 조국으로 찾아 가는 재일동포경축단의 력사적인 발걸음을 노래한 가사 《조국으로 가는 길》(태백수 1948.12)은 주권국가의 공민이 된 이후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나아가는 동포들의 억센 마음을 노래한 첫 작품이다.

재일조선인들의 **김일성장군**칭송의 감정의 시적일반화는 전쟁의 불구름이 조국 강산을 휩쓸던 그때, 도쿄에서 창작된 동시 '**김일성장군**'(1953. 남시우)에서도 울려 나왔다.

총련이 결성(1955) 되고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 무어 진(1959) 이후 수령찬가는 활발히 창작되었다.

1959 년 귀국의 길을 열어 주시고 1960 년부터 매해 총련의장에게 새해축전을 보내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재일조선작가들이 천리마로 내달리는 사회주의조국의 벽찬 소식과 함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1960.11),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1964.11)를 받아 안을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였다.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작가들에게 조선작가동맹 맹원의 영예를 안겨 주시고 재일조선시집 《조국에 드리는 노래》(1957)를 비롯한 작품집을 조국에서 출판하도록 배려하여 주시여 재일조선작가들이 시대와 애국운동앞에 지닌 사명을 다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헌시 《찬가》(1962. 허남기)와 헌시 《수령께 드리는 노래》(1967. 한덕수), 시 《그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네》(1967. 남시우), 시 《**김일성**시대에 사는 기쁨》, 《마음의 꽃다발》(최설미)을 비롯한 작품들은 1960 년대 재일동포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노래하였다.

1962 년의 4 월명절은 헌시 창작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뜻 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작가들은 그이를 우러르는 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시와 가사로 엮은 작품집 《찬사》(1962.4)를 펴 내고 창작가요집 《찬가》를 출판하였다. 《찬사》의 편집후기는 《해방후 처음으로 이와 같은 재일작가들의 종합작품집을 간행하게 된다.3 월초부터 불과 40 일간에 작품을 쓰고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해 내였다. 이것은 이때까지 없던 일이다. 이는 오로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50 주년을 충성심으로 축하하며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자라나고 수령님이 가리키시는 길에서 더욱 큰 창조적열매를 이룩하려는 재일조선작가들의 단심의 표현으로 된다.》고 썼다.

1960 년대중엽 수령찬가는 서정시, 가사, 동시만이 아니라 서사시로도 뜨겁게 형상되었다. 중등교육실시 20 뉘에 즈음하여 서사시 《조국의 해빛 아래》(1966),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의 배려 열둑에 즈음하여 서사시 《조국과 수령께 드리는 노래》(1967), 공화국창건 스무뉘에 즈음하여 서사시 《위대한 수령께 영광을 드리니다.》(1968)가 창작되었다. 그리고 시집 《수령께 드리는 노래》(1967.4)가 출판되었다.

총련 제8차 전체대회(1967)이후 총련사업에서 주체의 사상체제를 세울데 대한 사업이 힘 있게 벌여 지고 동포들과 작가예술인들속에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함께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학습운동이 심화되면서 현시, 송가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왕성히 창작 되고 동포들속에서도 널리 창작되었다. 1972년 4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신절에 즈음하여 총련중앙과 각 지방본부, 지부, 분회조직들, 그리고. 문예동중앙을 비롯한 단체, 사업체들과 각급 학교들에서 그이께 삼가 올리는 시와 노래를 포함한 6천여점의 선물이 마련되었다. 이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애국운동을 해 나갈 동포들과 작가예술인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다. 현시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1972.한덕수), 《영광의 한길우에서》(1972.집체시),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1972.집체)가 창작되고 시집《충성의 노래》(1972.4), 창작가요집 《주체의 기치 높이》(1972.4)가 출판되었다

칠성판에 오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져 주시여 재일동포들의 수난에 찬 력사에 종지부를 찍어 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대원수님을 노래한 현시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보살피심이 있어 총련이 영광찬 로정을 걸어왔음을 서사시적으로 보여 준 첫 현시이다.

이 시기 4월명절만이 아니라 새해, 총련결성기념일, 국경절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창작된 송시는 《조선신보》, 《조선창년》, 《조선상공신문》, 《조선대학교신문》, 《문학예술》, 《조대문학》을 비롯한 기관지들과 문집들에 게재되었다. 시가작품들은 전문시인들만이 아니라 총련일군, 분회동포, 녀성동맹원, 조청원, 지식인, 학생 등 광범한 동포들속에서 창작되어 조국주제작품과 함께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하였다.

1974년 재일조선작가예술인들의 조국방문이 실현되고 1979년 재일조선작가대표단의 조국강습이 조직됨으로써 흠모하여 마지 않던 수령님을 직접 몸가까이에 모시는 영광을 지닌 작가, 시인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송가작품들을 내 놓았다. 가사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70만은 축원합니다》(1974.집체) 가사 《인자하신 그 영상을 우러릅니다》(1976.김두권) 《수령님 만나본 영광의 그날》(1974.강초련)가사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1978.한덕수) 시 《백두산에 올라》(1972.집체) 가사《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여》(1973.집체)가사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며는》, 서정시 《감격의 이날》(1977.정화흠) 시 《어버이수령님 손 잡아 주셨나이다》(1975.김청숙) 시 《어버이수령님 우러러》(1976.허옥녀)》를 비롯한 작품들은 70년대 끓어 오르는 흠모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70년대이후 창작된 현시, 송가는 작품집 《조국은 언제나 마음속에》(1979), 시집 《영광의 노래》(1970), 《조국 하늘 우러러》(1973), 《은혜로운 해빛 아래》(1975), 노래집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며는》(1977), 《이역땅에 올리는 충성의 노래》(1977), 개인시집인 허남기시집 《조국 하늘 우러러》(1980), 남시우시집 《조국에 드리는 송가》(1982), 정화수시집 《영원한 사랑 조국의 품이여》(1980), 정화흠시집 《감격의 이 날》(1980), 김두권시집 《아침노을 타 오른다》(1977), 김학렬시집 《삼지연》(1979), 로진용시집 《홍초여 너처럼》(1979)을 비롯한 작품집과 노래집들에 수록되었다.

1980년대는 현시와 더불어 그이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와 위대한 품모 고매한 덕성을

노래한 큰 형식의 작품창작에서 성과가 이룩된 시기이다.

조선로동당 제6 차대회를 경축하는 총련가무단의 음악무용구성시 《70 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1980. 집체)가 창작되어 조국과 일본에서 공연되었다.

1982년 일흔번째 탄신절에 즈음하여 음악무용구성시 《4월의 봄명절에 드리는 충성의 노래》(1982. 4)가 창작되고 재일조선예술인들에 의해 성과리에 공연되었다. 현시 《만수축원의 노래》(1982. 한덕수)와 송가가사 《70 만 송이송이 꽃이 되어서》(1982. 김두권)를 비롯한 많은 송가가사들도 이 시기 창작되었다.

작가예술인들은 총련결성 30돛에 즈음하여 음악무용서사시《5월의 노래》(1985. 집체)를 창작하고 종합시집 《해와 별 우러러》(1985)를 펴 내었다. 서사시《5월의 노래》중에서 송가가사 《70 만은 영광을 드리웁니다》(집체)와 수령님 탄생 75돛에 즈음하여 창작된 송가가사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큰 절을 드립니다》(1987. 집체), 《우러러 모시는 한마음》(1987. 집체)등은 이 시기 대표적작품들이다.

제 10 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1992. 4)에 참가한 재일조선예술단은 음악무용구성시 《수령님 환하신 웃음속에 우리 행복 꽃 필니다》를 공연하여 대 절찬을 받았다.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웃음은 재일동포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제일 행복이라는 종자를 꽃 피운 구성시는 탄생 80돛을 맞으신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며 세월과 더불어 그이를 더 잘 모시려는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충성의 감정의 분출이다.

위대한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 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재일동포들을 극진히 보살피 주신 건국의 시조이시며 총련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철석같은 신념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작품은 21 세기에도 계속 창작된다.

2) 작품의 사상주제적특징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노래한 시가문학은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을 창시하시고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신 수령의 위대성찬가이며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주시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인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메아리이다. 그리고 선대수령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나갈 해외교포들의 영생기원의 문학이다. 시가작품들은 사상주제적내용에서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특징은 첫째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찬양이며 그이를 모신 기쁨과 행복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수령님을 칭송한 가사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1978. 한덕수)는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공화국창건 30돛을 맞은 뜻깊은 해에 조국을 방문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라 희세의 영웅을 감격속에 우러르는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혁명의 뿌리 내린 백두령봉 올라가니
푸른 하늘 바람 재워 반갑게 맞이하네

뜨겁게 고동치는 우리 심정 알아선가
 붉은 해도 구름 걷고 따사로이 환영하네
 (후렴) 아 푸른 물도 천지의 맑은 물도
 주체사상 창시하신 수령님을 노래하네

가사는 뜨겁게 고동치는 가슴을 안고 조선혁명의 뿌리 내린 백두산 상상봉에 오른 서정적 주인공의 격동된 심정을 노래하면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시대와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수령님을 칭송하였다.

시 《초가집의 력사가 있었기에》(1976. 정화수)는 수령님 계시어 재일동포들이 누리는 행복을 노래한 작품이다. 민족의 태양이 솟아 오른 만경대 초가집을 노래한 시의 서정적 주인공은 총련의 상징인 조선화관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숭엄하게 안겨오는 유서 깊은 만경대 초가집을 잊지 못한다. 서정적주인공은 초가집의 력사,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있어 원한의 피가 스민 이국에도 총련화관을 비롯한 총련의 집들이 높이 솟아 있다고 긍지 높이 노래하였다.

수령님께서 계시어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 온 이역의 동포들은 주체조선의 어엿한 해외공민으로 참삶을 누리게 되었다. 재일동포들 누구나가 가슴속깊이 간직한 이 뜨거운 마음은 해외동포들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올려 세우신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시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네!》(1967. 남사우)는 재일동포대표가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된 그날의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창작된 서정시이다. 시는 재일동포들이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나서게 된 기쁜 소식에 접하여 온 밤 새우며 춤 추고 새벽길을 노래로 누벼 온 서정적주인공의 누를 길 없는 감격과 기쁨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이 노래 주신이 누구이신가 / 이 춤을 주신이 누구이신가 / 한 많은 이국땅 풍상속에서도 / 이 행복을 주신이 누구이신가! //

북소리 동동 강산을 울리네 / 환호소리, 만세소리 천지를 진동하네 /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자랑 / 천년만년 무궁토록 끝 없다네! //

길 가던 일본사람 발을 멈추고 / 노래의 물결에 그도 취하였네 / **김일성원수님!**
 주체의 조선! / 그들도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네//

진정 세상이 쳐다 보는 / 우리 조국이라네! /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받드는 /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네!//

시인은 우리 수령, 우리 조국이 제일이며 그이께서 계시어 재일동포들이 받아 안은 긍지와 영예, 행복과 보람이 끝이 없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동포들은 환희에 잠겼다고 토로하였다. 아버이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북박쳐 오르는 기쁨을 뜨겁게 노래한 시에는 요란한 시적표현과 생경한 정치적표현이 없다. 시인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입말을 그대로 시적언어로 리용하면서 사상감정을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송가가사 《70 만 송이송이 꽃이 되어서》(1982. 김두권) 에서도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된 뜨거운 마음이 울려 온다. 뜻 깊은 명절을 맞는 70 만의 소원은 바로 수령님의 만수무강이다. 가시는 이국땅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 온 재일동포들을 주체조선의 떳떳한 해외공민으로 키워 주신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찬 바람에 시달리던 재일동포들
주체조선 주인으로 자래우신 그 은정
70 만 송이송이 꽃이 되어서
만수축원 꽃바구니 드리웁니다 (2절)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 받던 어제날의 재일조선인들. 산 설고 물 설은 이역땅에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받아 오던 조선동포들. 그들을 공화국의 어엿한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시고 참다운 생활을 향유하도록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어버이수령님. 그이는 정녕 70 만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삶의 은인이다. 그러니 어찌 그이께 충성이 함뿍 담긴 꽃바구니를 올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참으로 어버이수령님 그 은정 송이송이 꽃이 되어 만수축원의 꽃바구니를 삼가 올리는것이다.

사상주제적특성은 둘째로 조선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신 수령님의 탁월한 정도에 대한 레찬이다.

혁명의 려명기로부터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신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노래한 헌시 《찬가》(허남기.1962)는 그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시는 수령님의 그 성함을 부를 때마다 가슴을 울렁이는 술한 화폭이 있다고 노래하면서 그이의 혁명활동의 매 단계의 가장 특징적인 사적들을 화폭으로, 연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감정선을 축적해 나간다.

그것은/ 남호두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는/ 엄숙한 모습, //
그것은/ 유격근거지인민들앞에서/ 불패의 신념 안겨 주시는/열렬한 모습, //
그것은/숙영지의 밤이 깊도록 등불 밝히시고/ 조국광복회 10 대강령 구상하시는 /
영명하신 모습//

시는 재일동포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가슴 부풀게 하는 이러한 생동한 시적화폭을 계속 펼쳐 나간다. 광복후 평양으로 개선하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모습과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코대를 꺾으신 용맹한 모습으로 이어 지며 언제나 로동자, 농민, 전사들속에 계시는 그이의 거룩한 영상을 펼쳐 준다. 시인은 감정의 최고절정에서 그이의 성함이 너무나도 숭고하고 거룩하기때문에 시와 노래로써밖에 감수할수 없는 시인의 고조된 마음을 터뜨리면서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 우리 인민의 승리와 희망, 이 모든것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계심으로 하여 이루어 졌음을 격조 높히 노래하였다. 시 전편을 통하여 강하게 흐르는 이러한 감정정서는 조선인민과 재일동포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인에 대한 칭송의 마음의 시적일반화이다. 시 《찬가》는 4 월명절에 즈음하여 창작된 대표적인 헌시이다.

시인들은 재일동포들에게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겨 주시고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수령님을 칭송한 시가창작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다.

헌시 《만수축원의 노래》(1982)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여 갈 길을 몰라 헤매이던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에 올려 세우시였으며 총련을 무어 주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재일동포들은 총련의 지붕 아래에 굳게 뭉쳐 애국운동의 주인이 되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서게 되었다고 노래하였다. 헌시는 수령님을 주체의 산아 총련의 조직자, 령도자로 높이 찬양하였다.

총련이 걸어 온 자랑스러운 승리의 력사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자취이며 총련의 권위는 곧 수령님의 권위이다. 시인들은 시《한없는 영광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이러한 사상감정을 노래하였다.

사상주제적특성은 셋째로 절세의 위인이신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이다.

재일조선동포들을 언제나 아끼시고 하해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수령님은 70 만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시문학에서 수령님을 《70 만의 자애로운 아버지》 《재일동포들의 은혜로운 스승》으로 우러러 노래한 작품은 매시기 수많은 창작되었다.

수령님께서 이역의 동포들에게 돌려 주신 많고 많은 사랑을 노래한 작품중에 전설과도 같이 전해 지는 노래가 있다.

가사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1957. 한덕수)는 45 년전,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도 이역의 동포들은 조선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접한 재일동포들의 감격을 노래하였다.

고매한 덕성에 대한 시가에는 그이를 몸 가까이 모시고 거룩하신 위인의 품모에 매혹된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감정을 시적으로 일반화 한 작품들에서도 울려 나왔다.

꿈결에도 그리 보던 수령님을 만나 뵈운 감격의 그날을 노래한 시는 많다. 서정시 《감격의 이날》(1977. 정화흥)은 조국을 위해 해 놓은 일이 없는 《나의》손을 뜨겁게 잡아 주신 그이께서는 3 대의 소원을 풀어 주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 대를 이어 충성다할 결의를 굳게 다지는 서정적주인공의 뜨거운 마음을 노래하였다.

위인의 덕성을 노래한 시가와 그이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칭송한 작품들은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과 융합되어 울려 나왔다. 온 겨레와 더불어 해외에 사는 동포들을 그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수령님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체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읊은 송시 《수령님의 안녕은 온 겨레의 념원》(1978. 정화수)과 《꿈같은 소원이라도》(1979. 김정수)는 대표적작품들이다.

재일조선시인들은 남녘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노래한 주제작품도 창작하였다. 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1974. 정화수)는 분계선이 가까운 전연도시 개성에 높이 모셔 진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자남산마루에 높이 서시여 남녘땅 겨레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수령님께서 《분렬의 아픔 하루 빨리 가서 주기 위하여/ 헤여 진 가족들과 온 겨레들에 / 통일위업 앞당기자고 타이르고 계셨습니다》고 하면서 그이는 재일동포들과 함께 남녘의 겨레들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소리높이 자랑하였다.

사상주제적특성은 넷째로 20 세기 거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실 변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이다.

총련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평생로고를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변한다 하여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재일조선시인들은 그이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의 서사시를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순결한 마음과 그이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감정을 읊었다.

시 《영원한 미소》(홍순련)는 1994 년 7 월 온 나라가 비애속에 잠기던 그때, 수령님을 영결하지 않으면 안될 그 시각을 노래한 작품의 하나이다.

친어버이를 잃은 커다란 슬픔과 비애속에 온 나라 인민들이 통곡하는데 령구차의 앞을 가는 태양상사진. 시인은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한 웃음을 뿌리시며 어디로 떠나가시는가고 절절하게 노래한다.

조선의 운명을 떠 맡을/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진두에 계시니/ 조선의 래일은
환하다 하시며/ 그리고 밝은 웃음, 안도의 웃음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시는겁니까//
수령님은 떠나가시면서도/웃음속에 푸른 하늘을 주고 가십니다/ 웃음속에 밝은
태양을 남기고 가십니다/ 웃음속에 빛날 미래를 주고 가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두리에 단결한/ 조국의 아들딸을 보시며/ 총련의 아들딸
들을 보시며/ 저만큼 다가 온 통일의 그날을 환히 바라보시며//
그렇게 락관에 넘치시는/영원한 미소/불멸의 미소/ 우리 심장에 남기시며/
어버이수령님 떠나가십니다//

너무도 뜻하지 않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수령님.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당한 대 국상. 산천초목도 슬픔에 젖었고 날아가던 새들도 수령님을 못잇는듯 만수대언덕을 감돌며 날아예던 날, 우리 인민모두가 파눈물을 뿌리던 그날을 어찌 잊을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조선의 운명을 떠 맡을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니 조선의 앞날은 환하다 하시며 수령님께 서는 락관에 넘치신 영원한 미소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남기시고 떠나가신다고 시인은 노래하였다.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은 시 《커다란 슬픔을 커다란 힘과 용기로》(김학렬)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오향숙) 《금강산의 비비초》(하옥녀) 동시 《우리와 함께 계세요》(고봉전) 《대원수님 신발》(최영진) 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시적으로 일반화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 모실 재일조선동포들의 마음을 담은 시가작품은 계속 창작될것이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노래한 시가작품

1) 개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노래한 시가창작은 재일조선문학이 거둔 귀중한 성과이

다. **김정일장군칭송시**가는 수령의 계승자의 출현과 후계자의 위대성이 해외동포들의 심장을 격동시킨 역사적사실에 대한 반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입니다.**》

조선해외교포들은 1970년대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추대되시여 조국에서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크나큰 기쁨의 소식에 접하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노래한 시가의 창작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문무충효를 다 겸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로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하시고 선군령도로 새 세기, 새 역사를 펼치시여 강성대국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신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게 된 재일동포들의 장군님에 대한 신뢰와 함모의 정은 날로 높아 졌으니 70년대이후 동포들의 주도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는것은 재일조선시인들앞에 시대적과업으로 나섰다.

아버이수령님을 절대적으로 함모하고 따른 순결한 마음을 대를 이어 세기를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고수란히 바쳐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드팀 없이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것은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 그리고 총련문예일군들의 순결한 애국전통이다.

재일조선작가예술인들은 1970년대 이후 시대와 재일조선인운동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경애하는 장군님 칭송시가를 널리 보급하고 적극 창작하였다.

송가가사는 총련 제 13차 전체대회(1983)이후 동포들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송가가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는 2월명절뿐 아니라 총련의 각종 대회와 모임들에서, 각 현본부, 지부들과 학교들에서 높이 울려 퍼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신뢰와 함모의정이 절정에 오른 1997년 봄,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널리 보급되였다. 《조선신보》(1997년 4월 24일부)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가사와 악보를 처음으로 게재하고 조선화관 강당에서는 혁명송가를 보급하는 모임(5월 24일)이 엄숙히 진행되었으며 5월 30일부 《조선신보》는 송가의 작사자와 작곡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소급해 올라가 보면 재일동포들은 1970년대 조국의 국립평양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여러 대표단 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조국방문시에 조국에서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기쁨의 소식에 접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수령님과 함께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게 된 기쁨에 겨워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재일조선작가들은 첫시기 그이를 새 시대를 밝히는《향도의 별》, 《시대의 별》로 우러러 칭송하였으며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을 모신 조국을 《해와 별 모신 조국》으로 노래하였다.

재일조선문학에서 장군님의 존귀하신 성함을 정중히 모신 헌시는 1981년 2월에 처음으로 창작되였다. 그해 2월 16일 헌시 《2월의 명절에 드리는 노래》(한덕수)가 발표되고 17일에는 송시 《거룩한 그 걸음》(정화수)이 출판물에 게재되였다.

재일조선작가들은 1982년 그이의 탄생 40돐을 커다란 창작성으로 빛내였다.

축하시 《온 민족의 축원》(집체)과 헌시 《2월에 드리는 충성의 송가》(한덕수)가 발표되고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기관지 《문학예술(특집호)》는 송시 《영원한 무포의 흐름이여》(김두권)를 비롯한 9편의 송시와 수필 1편을 실었다. 영화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동포들의 모습을 기록영화 《충성으로 들끓는 2월의 명절》에 담았으며 2월명절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축하대회에서는 음악무용구성시 《2월명절에 드리는 70만의 충성의 노래》가 상연되었다. 가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70만은 우러러 영광드리네》, 가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노래 멈추지 않으렵니다》는 합창과 여성독창으로 불리워 참가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재일조선작가들은 이 시기 헌시와 송가들에서 지주시대의 태양으로 솟아 오른 장군님의 위대한 탄생을 소리 높이 자랑하고 그이의 영광찬 투쟁로정과 거룩하신 발자욱에 매혹된 동포들의 감정을 시적으로 일반화하였다. 또한 이국의 하늘 아래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그이를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나갈 충성의 결의를 일반화하였다.

80년대 송가작품은 장시, 송시, 동시 등 여러 형태로 창작되었다.

송시 창작의 계기도 다양하다. 2월명절을 뜻 깊게 맞이 하면서, 새해에, 국경일에 즈음하여, 그리고 조국방문시 백두밀영고향집을 답사하면서도 적극 창작되었다.

시인들은 1985년 총련결성 30돐에 즈음한 음악무용서사시 창작사업과 공화국창건 40돐을 창작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현상모집(1988년), 그리고 제13차 평양축전국제문학창작실(1989년)에서, 또한 문예동결성 30돐에 즈음한 현상모집과 대중가요창작운동을 널리 벌이는 과정에서 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신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였다.

작품들은 종합시집 《조국의 품에서 부르는 노래》(1983), 재일조선시집 《해와 별 우러러》(1985), 재일조선시집 《봄빛속에서》(1987), 가요집 《우리 노래》, 《대중가요집》(1989)을 비롯한 여러 작품집, 가사집들에 수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예동지부기관지들인 《산울림(도교문예동)》, 《불씨(오사까문예동)》, 《령마루(가나가와문예동)》, 《문예동해(도카이문예동)》, 《문예효고(효고문예동)》, 《뫓별(교토문예동)》 그리고 개인시집들인 남사우시집 《조국에 드리는 송가》(1982), 류인성시집 《고향》(1982), 최영진시집 《옛!》(1984), 로진용시집 《꽃들의 마음》(1986), 《나는 들었네》(1989), 고봉전시집 《애기별은 빛난다》(1987), 김윤희시집 《내고향》(1987), 오상홍시집 《산이여 한나여》(1987), 허옥녀시집 《산진달래》(1988), 정화흠시집 《념원》, (1985) 김두권시집 《조국 그 이름 부를 때마다》(1985), 김학렬시집 《아, 조국은》(1990), 김정수시집 《꿈같은 소원》(1993), 재일녀류3인시집 《봄향기》(1998), 오홍심시집 《사랑의 요람》(1999), 류창하작품집 《흰 구름 동동》(2000), 고봉전시집 《제일 고운 꽃》(2000), 가요선곡집과 작품집들인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1988 한덕수),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다》(1999. 한덕수), 《조국의 사랑은 마사로워라》(1989. 최동옥) 《이국의 하늘아래》(1991. 리갑준) 《백두산의 쌍무지개》(2001. 김두권)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그이의 현명한 령도, 인간적품모를 노래한 작품들이 적극 실렸다. 또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 주시는 사랑의 노래가 수록되었다.

80년대이후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 장군님창송시가는 활발히 창작되었다. 백두광명성을 길이 모실 재일조선청년들의 주도적감정은 조청중앙기관지 《조선청년》, 작품집 《조대문

학》(조선대학교), 《별무리》(조선대학교 문학부 4 학년), 《빛발》(조선대학교 교육학부 3년제)을 비롯한 여러 작품집들에 게재되었다. 조국의 한 전문가는 문집을 읽고 《일본땅 우리 동포 사는 그 어느 곳에서나 민족의 넋, 애국의 씨앗을 활짝 꽃 피워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말을 지키고 빛내이는 충효의 별무리들로 영원히 변함 없이 밝은 빛을 뿌려 주길 바란다》(《별무리》 10 호)》고 썼으니 조선대학생들은 송시 창작에서 선구적역할을 놀았다.

재일동포사회에서 세대교체가 일어 나고 3, 4 세들이 주역으로 등장한 1980 년대 후반 새 세대 동포교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대중적인 가요창작운동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새 세대 청년들의 감정을 시적으로 일반화한 가사작품창작은 재일조선문학운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재일조선청소년들의 마음과 위대한 장군님을 친아버지로 언제나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가사 《결에 계시면》, 《아, 김정일 70 만의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다》 《가고파》를 비롯한 작품들은 금강산가극단과 재일조선가무단 공연을 통하여 널리 보급되고 재일조선청년들속에서 불리웠다. 가사는 가요선곡집 《평양은 노래하네》 (1991), 애창가요집 《길동무》(1994) 청년노래집 《우리는 언제나》(2001)등의 가요집들에 수록되었다.

1990 년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령도로 세계정치사에 류례 없는 불멸의 혁명실록을 새기시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의 행군,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시고 조국땅우에 강성부흥하는 주체조선의 새 시대를 펼쳐 주신다는 소식은 재일동포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재일조선작가들은 선군정치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충성의 열정 담아 시적으로 형상하였다. 《로동신문》과 《조선문학》, 《조선신보》, 재일조선시인시집《따르는 한마음》(1992), 총련결성 40 돌기념문학작품집 《사랑은 만리에》(1996), 총련결성 45 돌기념문학작품 《풍랑을 헤치며》(2000)를 비롯한 여러 작품집에 장군님을 칭송한 작품들이 실렸다.

송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만세! 》(남사우), 헌시《김정일장군님 축하를 드립니다》(한덕수), 시 《내 마음도 저 하늘과 같이》 (김윤희), 시 《이날의 감격》(김학렬)은 1997년,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기쁨과 감격의 노래이다.

헌시 《김정일시대전성가를 노래합니다》 (한덕수), 시 《조선의 영광을 노래하라》 그리고 시《우리 장군님》(오향숙)은 1998년,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커다란 영광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2000년 6월 북과 남의 두 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재일조선시인들은 조국통일 위업 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였다. 시인들은 빛나는 선견지명과 애국애족의 대 용단으로 새로운 통일강령을 마련하시어 민족분열을 끝장 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주신 김정일장군님을 흠모의 정을 담아 계속 노래하고 있다.

2) 작품의 사상주제적특징

김정일장군찬가는 그이를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추대한 재일동포들의 기

뽕의 노래이며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게 된 70 만의 환희의 노래이다. 또한 두 분의 수령을 모시고 애국운동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신념의 노래이다.

사상주제적내용의 특징은 첫째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의 출현과 시대를 밝히는 향도성 탄생찬가이다.

풍파 사나운 이역에서 사는 재일조선동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고결한 사상감정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언제나 당당하다는 공민된 자랑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후계자문제가 옳바로 해결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 사실을 목격한 재일조선동포들이기에 그 감정은 더욱 절절하다. 시인들은 그이를 주체의 새 시대를 밝히시는 향도성으로 찬송하고 **김정일장군**을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모신 행복을 노래하였다.

헌시 《2 월의 명절에 드리는 노래》(한덕수), 《2 월명절을 맞는 아침에》(김윤호)를 비롯한 작품들은 그이의 탄신절을 최대의 경사로 맞은 기쁨을 노래하였다.

우리의 생각 깊어만 갑니다/ 창가에/ 이른봄 해살이 비쳐 드는/
2 월의 명절을 맞는 /이 아침에//

누리를 비치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그 빛발 고수란히 이어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동지!//

만경대에 솟아 오르신/민족의 태양 비치시는 해살/그 따사로움 이어 받으
셨기에/ 우리에게 안겨 지는 사랑/ 그 깊이를 헤아릴길 없습니다//

백두의 숭엄한 정기/한가슴에 안으셨기에/그 예지 천지의 맑은 물마냥/하늘을
비치시나니/ 우리 그 높이를 헤아릴길 없습니다//

향도의 태양이 솟아 오른 2월의 명절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경사의 날이다. 그이의 탄생은 수령님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만대에 이어 나갈 령도자의 출현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애국운동의 미래를 약속하는 대 경사였다. 하기에 시인은 탄신절을 맞은 2 월의 아침이면 저절로 생각이 깊어만 가고 그이의 사랑의 깊이, 예지의 높이를 헤아릴수 없다고 하면서 한 시대에 두분의 수령을 모신 행복을 구가하였다.

2월명절을 맞은 기쁨과 환희는 시 《거룩한 그 걸음》(1981 정화수), 송시 《2월에 드리는 송가》(1982 한덕수), 시 《축원》(1983. 정화흥), 시 《눈 내리는 2월의 아침에》(김학렬), 시 《영원한 무포의 흐름이어》, 가사 《백두산의 쌍무지개》(1982. 김두권), 시 《2월의 하늘》(김정수)에서도 뜨겁게 울려 나왔다.

그리고 향도의 태양이 솟아 오른 백두밀영 고향집을 답사하여 지은 시 《소백수의 노래》(김학렬)와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노래한 시《**김정일**화 피여 납니다》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도 주체위업의 계승자의 출현과 시대를 밝히는 향도성의 탄생의 기쁨이 울려 나온다. 2 월의 탄신절에 즈음하여 창작된 작품들은 한결같이 이역땅일본에서 그이의 영상우러려 숭고한 감정에 휩쌓인 서정적주인공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기쁨을 노래하였다. 또한 그이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신 재일동포들의 자랑이 시줄마다에 어려 있다.

사상주제적특성은 둘째로 세련된 정도로 세기적변혁을 이룩해 나가시는 탁월한 장군의 위대성칭송이다.

시인들은 정력적인 탐구와 독창적사색으로 사상리론을 풍부하시고 탁월한 정도로 시대를 주름잡아 나가시는 그의 위인적풍모를 노래하였다.

송시《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만세!》(남사우)와 헌시 《2월에 드리는 충성의 송가》(한덕수)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높이 올려 나왔다.

위대한 주체의 사상과 리론을/ 인류사상 최고봉에 높이높이 세우시고/
자주위업 광명의 앞길을 밝히시며/ 민족의 만년재보 남겨 주신 장군님//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성에서/ 수령님과 꼭같으신 천출위인 장군님을/ 친애하는
지도자로. 스승으로 칭송하며/ 받드는 마음 더욱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원썬들의 압살책동 일격에 짓부시고/ 일심단결의 위력 만방에 과시하며/ 자주
자립 자위의 강성대국 선포하시어/ 사회주의보루를 펼쳐 주신 장군님//
시《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만세!》(남사우)

주체사상을 인류사상의 최고봉으로 높이 세우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 송시는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히시여 민족의 만년재보를 남기신 장군님을 천출위인으로 칭송하고 원썬들의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내 놓으신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조 높이 노래하였다.

시인들은 또한 선군령도로 불멸의 혁명실록을 새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노래하였다. 시 《장군님 가시는 길》(정화수)은 세계 정치사에 류례 없는 혁명실록을 새기시며 고난의 행군을 승리의 행군으로 이어 가시는 장군님을 노래한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혈전만리 불길속에서 백두의 정기를 타고 태어 나신 장군님께서 수령님 걸으신 수만리길을 오늘도 이어 가시는 영상을 우러러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제국주의렬강들이/ 조선을 덤치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우리 장군님//
수령님 걸으시던 수천수만리길/ 오늘도 이어 가시며 /고난의 행군 진두에 서시여/
락원의 행군으로 이끌어 가시네//
조선의 가슴에 / 시대의 새 정신/ 강계정신을 불지펴주시고/ 조선의 어깨에/천리마
의 새 날개/대홍단기풍의 날개를 달아주시며/ 강성대국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시는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제국주의렬강들의 그 어떤 책동도 단만에 짓부시고 간고한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 가시는 거룩한 영상을 노래하였다. 시인은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장군님 가시는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이며, 조선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높이 찬양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심장을 틀어 잡은 장군님의 위대성은 동포들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높이 울렸다. 시인들은 장군님의 위대성을 알고 싶어 하는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마음을 서정

시와 가사로 노래하였다. 서정시 《나는 들었네》(로진용)는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보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노래한 대표적작품이다. 시인은 그이를 몸 가까이 모시고 싶은 소원과 그이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하는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을 조국방문을 앞둔 한 동포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시적으로 일반화하였다.

사상주제적특성은 셋째로 해외동포들을 무한히 아끼시는 위인의 은정깊은 사랑의 노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위대한 정치적령도자이실뿐아니라 위대한 인간으로서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 재일조선시인들이 장군님의 고매한 덕성을 중요한 형상과제로 한것은 그이의 은정 깊은 사랑이 재일동포들에게 준 큰 감화력과 관련된다.

시인들은 그이를 《우리의 지도자》, 《영명하신 지도자》로 우러러 칭송하였으며 세월과 더불어 날을 따라 더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접하여 그이를 《70만의 아버지》로 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누리를 밝히며 앞길을 비쳐 주는 《큰별》로 노래한 가사 《아, 김정일 70만의 아버지》(김정수)는 날마다 새 힘을 주고, 이역에 밝은 희망을 안겨 주며, 70만의 마음속에 언제나 계시는 그이를 향도의 큰별로 높이 칭송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덕성을 노래한 시가가 어찌 그뿐이라. 총련일군들을 언제나 혁명동지로, 영원한 동행자로 굳게 믿어 주시고 총련일군들은 일본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바치는 숨은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장군님의 그 믿음과 친아버지 사랑은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로 되었다. 시 《그이 지켜보시는 길》(김정수), 시《2 월의 봄빛 맞아》(오홍심)를 비롯한 시가작품들은 총련일군들에게 돌려 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노래이다.

그이의 고매한 덕성을 칭송한 작품에서는 언제나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정에 대한 감사가 울려 나온다. 시 《행복》(1989. 강명숙)은 이역의 이름 없는 한 청년을 조국에 친히 불러 주시고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무대에 높이 세워 주신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였다.

시 《차넘치는 감격속에》(오향숙), 시 《이역을 헤아리시여》(로진용)는 한신아와지지역을 휩쓴 악몽같은 대진재때 너무나도 원통하여 폐허앞에 낮을 잃고 주저 앉던 재일동포들에게 위문전문과 위문금까지 보내주신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덕을 노래하였다.

1994 년이후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엄혹한 시련이 닥쳐온 시기에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어찌 돈이라고만 하겠는가. 시 《또다시 보내 주셨구나》(량학철), 시 《128 번째의 사랑》(홍순련)은 조국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나날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귀한 돈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그이의 사랑과 배려에 접한 재일동포들의 감사의 노래이다.

사상주제적특성은 넷째로 위대한 령도자에게 운명도 미래도 다 바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억척같은 신념이다.

시인들은 위인의 비범한 덕성에 대한 칭송과 함께 그이에 대한 흠모와 충성심을 안고 그에게 운명과 미래도 다 바쳐 나갈 불타는 지향을 노래하였다.

조국땅우에 핵전쟁의 위험이 닥쳐 온 준엄한 그날에, 내외원썹들이 총련을 파괴하려고 전

대미문의 폭거를 감행한 그 순간에도 그이를 하늘처럼 믿고, 그이께서 계시면 이진다는 불같은 의지는 재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신념의 기둥이다.

2000년 금강산가극단공연의 가사 《장군님의 안녕은 총련의 운명》, 1996년 설맞이공연에 올린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의 주제가 《장군님은 우리의 제일생명》, 가사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다》(한덕수), 시 《우리 장군님》(오향숙)을 비롯한 여러 시가작품들은 장군님은 우리의 미래이며 제일생명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일반화한 작품들이다.

가사 《장군님은 우리의 제일생명》은 간또대지진때에는 수령이 없었고 조국이 없었기에 일본사람들이 조선사람을 마구 죽였지만 한신대지진때는 일본사람까지 살려 주신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두렵지 않으며 장군님은 운명도 미래도 맡긴 제일생명이라고 노래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찬란히 빛날 미래에 대한 확신의 노래는 가사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다》(한덕수)에서도 울려 나온다.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이민위천의 높은 뜻 꽃피워 가시며 만복을 주시는 인민의 어버이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필승의 투지로 강적도 다스리며 내 조국 지키는 천하의 제일명장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재일동포들의 드놀지 않은 이 신념과 의지는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신 감격을 노래한 시 《이날의 감격》(김학렬)에서도 울려나왔다.

《남의 나라 남의 땅이여도/ 머리 높이 들고 사는/ 조선사람의 긍지 안고/ 장군님 존함을 와우기만 해도/ 절로 힘이 되고 / 노래로 차》는 이 마음은 바로 장군님 우러르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이다.

시 《내 마음 팔지 않으리》(1998. 집체)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백절불굴의 신념을 노래한 작품이다.

바람바람 황금바람 이역땅에 불러
마음마음 우리 마음 흔들려 하네
만약 누가 마음 팔아 황금을 얻는대도
이 몸은 황금 위해 마음을 팔지 않으리
좋아도 장군님의 조국 장군님의 총련에서
어려워도 장군님의 조국 장군님의 총련에서
내 언제나 살리라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정세가 착잡하고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도 장군님 품속에 자란 이 마음은 언제나 그이와 함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 그 어떤 유혹과 시련속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며 장군님의 조국, 장군님 이끄시는 총련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리라는 억척같은 의지를 노래하였다. 이 신념과 의지는 무비의 담력과, 령활한 전략으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시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위인상에 매혹된 총련일군들의 사상감정을 일반화한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 운명과 미래를 의탁한 재일동포들의 신념의 노래는 많다.

광복후 오늘까지 재일조선동포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 왔다. 재일동포들이 걸어 온 승리와 영광의 갈피마다에 수령님의 령도가 새겨 져 있고 행복의 그 길우에 수령님의 거룩

한 자욱이 어려 있다. 총련이 걸어 온 영광 찬 로정에 수령님과 꼭 같으신 장군님의 존함이 빛나고 장군님은 새 세기 애국운동의 앞길을 밝혀 주신다. 사상도 품모도 덕망도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나가는것은 제일 행복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찬가는 그이를 하늘처럼 믿고 나가는 재일동포들의 확고한 결의의 예술적구현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수령칭송시가는 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재일동포들의 념원을 반영한것이다.

해외교포문학예술의 본보기인 재일조선문학이 거둔 이 귀중한 성과는 주체적송가문학발전에 특색 있게 기여하였다.

수령칭송문학은 예술적특징도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현시기(2000 년전후) 공화국의 경제동태에 대하여

~경제적난국을 벗어 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비전임강사 김수대

1. 1990 년대 중엽이후 경제동향

1)조성된 경제적난국

1990 년대 중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에 경제적난국이 조성되었다. 담당관 제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1998 년)의 생산목표는 전력(능력)300 만키로와트, 석탄의 하루생산목표가 6 만톤, 강철은 144 만톤이었다. 이것은 지난 80 년대 후반에 이룩된 최성기에 비하여 전력(능력 650 만키로와트)의 46 %, 석탄(8300 만톤, 1988 년)은 4 분의 1, 강철은(700 만톤, 1987 년)의 5 분의 1 의 생산수준에 떨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1). 60 년대초의 상태에 되돌아간 셈이다. 공화국의 기본연료동력산업과 기본소재부문인 강철과 카바이드의 생산부진은 호상연쇄반응하는 국내순환경제구조로 인하여 공화국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농업생산도 줄어졌으며 게다가 95년 7월하순부터 8월중순에 습래한 큰물피해(관수한 농경지 33만정보, 피해총액 150 억팔라), 그후 해마다 련달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알곡생산이 치명적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알곡생산량(95년 349. 9만톤, 96년 250. 2만톤)은 주식요구량(483 만톤, 큰물피해현지관계자 1962 년 2 월)의 절반밖에 충당시키지 못하였다.

2)새로 전개된 경제사업

1990 년대 중엽이후 난국에 처해있던 공화국경제를 수습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추켜 들게 된 98 년은 상징적인 해였다. 이해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산현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시였던것이다. 또한 4 년 5 개월 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었으며 그후 해마다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경제생산현장에 대한 현지지도

최근 생산현장에 대한 현지지도회수는 총지도회수 중 3 분의 1 을 차지한다. 현지지도는 생산현장들이 제기하는 경영상 및 기술실무적과제들을 푸는데 그치지 않으며 공화국이 새로운 혁명적경제사업을 조직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계정신》(98 년 1 월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 《성강의 봉화》(98년 2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 《감자혁명》(98 년 10 월 량강도 대흥단군종합농장에 대한 현지지도)과 《라남의 봉화》(2001 년 8 월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등을 올릴수 있으며 이외 탐수양어사업,

축산업, 국토관리사업 등 경제 여러 분야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학기술관계분야와 기계공장들에 대하여 많이 지도하시였다.

《현지도의 년도별 회수와 구분》

해	지도 회수	그중 군관계	경제생산현장	기타
1995	29	16	0	13
1996	50	38	0	12
1997	64	57	0	7
1998	58	46(79. 3 %)	7(12. 0 %)	5
1999	53	33(62. 3 %)	18(34. 9 %)	2
2000	38	21(55. 2 %)	13(34. 2 %)	4(11/30 까지)

*98년까지는 《조선중앙년감》, 그후《로동신문》이 보도한것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하신 령도예술을 제승하시면서도 독창성을 가지고있다. 이를 토지정리사업을 통하여 본다.

《토지정리사업내용》

실시한 도	정 리 면 적	실 시 한 기 간
강원도	3만 2000 정보	1998 년가을 ~ 1999 년 3 월
평안북도	5만 1550 정보	1999 년가을 ~ 2000 년 5 월
황해남도	5만여정보	2000 년가을 ~ 2001 년 4 월(1 단계 완료)

토지정리면적은 13 만 3 천여정보에 달한다. 이것은 3 개도 논밭면적(벼와 강냉이 재배면적)의 합계(54만 3천정보)의 25%에 해당하며 새로 확보한 농경지는 3100여정보에 달한다(황해남도의 2단계 예정면적을 포함).

이 기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토지정리현장에 몸소 나가서 하신 지도는 10 번에 달한다(《로동신문》이 보도한것). 같은 기간 토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회의나 협의회가 조직된 것은 제 2 번(《로동신문》이 보도한것)이 였다. 다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회의들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98년 5월 어느날 최전연시찰의 길에 강원도의 땀기밭과 다락밭을 보시고 즉시에 관계부문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2). 이리하여 전군중적, 전국가적토지정리사업이 시작하였다. 회의를 통하여 지도하신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것은 이 협의회뿐이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번에는 《김정일선집》(14)에서 분석한다. 이 로작의 문헌수록 기한은 1995년 1월 1일부터 99년 9월 29일까지의 4년 9 개월이다. 《오늘도 래일도 우리 혁명이 영원히 승리해 나갈수 있는 만년재부로 되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의 위대성》(*3)이 수 놓아진 시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수록된 로작과 문헌수는 38 편이다. 38 편을 10 개분야로 구분하여 분류한데 의하면 경제관계가 10 편이 되며 이것은 사상, 철학, 정치의 3 개 분야를 하나로 묶은것과 함께 가장 많은것(26. 3 %)으로 된다. 다음으로 로작과 문헌의 발표형식을 보기 위하여 서한과 축

하문형식, 담화, 논문의 3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서한과 축하문 형식이 8편(21. 1 %), 논문이 4편(10. 5 %)이며 이에 비하여 담화형식이 26편(68. 4 %)에 달한다. 담화를 하신 가장 많은 대상은 책임일군들이며 그것이 진행된 자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회의들(대회, 협의회, 모임 등)을 소집하시고 그를 통하여 지도하시는것보다 현장에 직접 나가시여 지도하시거나 관계부문 간부들과 직접 사업하시는 정도를 보다 중하게 여기신것 같다. 여기에 《무슨 일이든지 불이 번쩍나게 답새겨 속전속결하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4)의 일단을 볼수 있다.

(2) 내각의 구성, 내각중심제와 책임제

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제 1 차회의(1998 년 9 월)는 새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국가기구를 개편하여 내각을 조직하였다.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위원장이 국가대표)가 최고주권기관이라고 헌법이 규정(제 87 조, 제 106 조)하였기 때문에 내각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국가정부》가 아니라 경제사업을 위주로 행정전반을 관할하는 집행기간이다(제 117 조). (이에 따라 《민주조선》지는 정부기관지로부터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로 개칭되었다). 다시 말하여 내각은 경제사업전반을 직접 조직지휘하는 경제사령부이라고 할수 있다.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제구실을 원만히 하려면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것을 확고히 담보하는것이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이다. 94 년에 혁명적경제전락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제사업을 위임하는 정무원중심제, 정무원책임제가 발족하였다. 금번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은 이를 정비하고 경제사업전반에 대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획기적계기로 되었다.

경제사업에서 내각중심제는 모든 경제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주관하에 풀어나가는것이며 내각책임제는 내각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당과 국가앞에서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 쥐고 조직전개하는것이다. 다 같이 경제관리의 분권화를 반대하며 중앙집권적질서와 제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는 다름 아닌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내각을 통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가장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바로 여기에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의 혁명적본질이 있다.》(*5)

경제사령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내각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지역,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과 내각결정, 지시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감독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내각은 경제사업을 조직지휘하는 행정경제기관일뿐아니라 경제사업에 대한 검열감독사업을 직접 맡아 보는 기관이다.》(*6)라고 할수 있다.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가 당의 경제정책들을 집행하는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사업질서이라고 한다면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의 작성과 집행에 이르는 전기간에 대한 중앙집권제를 법적으로 규정한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제 2 차회의(1999 년 4 월)에서 채택되었다. 전 6 장, 48 조로 구성되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의의는 사회주의헌법이 공화국의 인민경제를 계획경제로 규정한 것(제 34 조)을 확인, 강조, 추진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획을 관철하는 지도관리를 강화한다는 데 있다.

우선 인민경제계획을 국가의 지령으로 규정하였다(제 1 조). 종래 장기계획이나 단개년계획(국가예산안)할 것 없이 매개 경제계획은 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하여 법적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해당단위들이 기간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 부과된 과업선이 농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민경제계획법은 모든 경제계획을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으로 존엄있게 대하고 무조건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게 한다.

다음으로 그 법적효력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제 2 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비준과 시달(제 3 장), 실행(제 4 장), 실행총화(제 5 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 행사하게 된다.

또한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한다는 것을 규정(제 6 장)하면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 46, 47, 48 조에 계획사업을 어길 경우에 조치하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그중 제 47 조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 제 48 조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처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제 47 조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류용,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 48 조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인민경제계획법이 제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구는 경제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인민들을 동원하는 것이며 특히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끌어 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경제의 계획적관리에서 그 어떤 분권화나 자유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자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나》(*7)가는데 있다.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한 것은 사회주의경제원칙을 견지하며 경제사업에 선군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난국을 수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단계에서 위력을 발휘하였다.

2. 경제적회복의 징후

1999 년 이후 공화국의 경제에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년도별정형을 본다.

1999 년. 《경제가 활기를 띠고 여러 공업부문들이 추서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앞날에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제 3 차회의에서 한 립경숙재정상의 보고)

2000 년. 1999 년부터 공화국경제에 회복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0 년에 《일시적으로 멎었던 공장, 기업소들이 다시 돌아 가고 2, 600 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중요공업제품생산이 훨씬 늘어나 공업 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1.1 배로 장성하였다.》(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제 4 차회의에서 한 홍성남총리의 보고)

2001 년. 《여러해째 어려운 난관을 겪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 적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자들이 일떠 섰다. »(2002년 1월 1일 3개신문사 공동사설)

우에서 본 내용을 국가예산집행정형 그중 예산수입추세에서 본다. 국가예산수입에서 국내 상품류통규모를 반영하는 거래수입금은 43. 2 %를 차지하며 그 다음에 많은것은 국유기업 의 생산실적규모를 반영하는 국가기업리익금이며 32. 9 %이다. 2개분야의 합계로 국가예 산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한다(거래수입금, 국가리익금의 바률은 2001년 예산안에 의함). 이와 같은 사실로 국가예산수입은 연간 인민경제의 활동규모(GDP)를 반영하고 있다는 결 론을 얻는다.

국가예산수입(*8)은 98년에 비하여 99년은 0. 1 % 증가하였다. 매우 미미한 장성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이해에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다음해에도 지속된것이다. 99년에 공화국경제가 최저상태로부터 벗어 나기 시작하였다는것 을 보여준다. 2000년의 수입실적이 343만원이었으며 이것은 99년에 비하여 5. 4 % 증가한 것으로 된다. 이는 공화국경제가 매우 성하던 1980년대 후반기에 국가예산수입이 해마다 4, 5 % 장성한 정형을 상기시킨다.

3. 현시기 경제부흥강국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경제문제

1) 4대제일주의와 경제건설

올해 새해공동사설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4대제일주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과업이며 여러 편향들 을 반대하고 앞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것이다.

또한 <<4대제일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다. >>(*9). 다시말해서 4대제일주의기치밑에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나라의 부강통 일을 실현하여 나간다는것이다.

새해공동사설은 4대제일주의중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실현하는 3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10). 즉 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것이다. 인민생활은 인민소비생활 과 생활환경을 망라한다. ②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한다. ③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전 국가 적인 관심을 돌린다.

공동사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 사업을 현시기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 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경제사업을 우리제도를 빛내이기 위한 한가지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2) 생산단위를 정리하는 사업

현재 공화국은 생산단위를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경제의 규모를 축소할데 대한

문제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년 12월)에서 결정된 방침이다. 당시 이 사업은 기본건설투자를 고려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렸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장, 기업소와 생산단위를 정리하는 사업은 조업정형, 실리를 내기 위한 요구, 설비의 현대화 등이 참작하여 부분적인 개조를 해야할 단위와 완전히 없애쳐우는 단위들에 대한 료해사업이 진행되었다(*11).

정리하는 생산공정들의 대상은 ① 전기를 많이 쓰는 공정 ② 뒤떨어진 공정 ③ 실리가 나지 않는 공정. 전국가적리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만을 앞세우고 건설된 자체의 원료생산기지들도 대상화되었다.

큰 힘을 넣어 생산을 추켜 세우는 생산단위는 ①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근에 현지도하신 단위들 ② 당의 은정 깊은 배려를 받은 단위들 ③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서 관건적고리로 되는 중요한 대상들이다(*12)

3) 과학기술사업과 대외경제사업

2000년 새해공동사설이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 기둥이다.》고 지적한 후 공화국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보산업을 강화하여 생산설비를 현대화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기술개선사업은 《정보산업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고 나라의 모든 경제부문을 정보화하며 국가경제력을 튼튼히 다지는것》(*13)에 과녁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라남의 봉화》정신과 이 기업소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밀고 나가고 있다. 동시에 공화국은 2000년에 기술혁명과 정보산업과 관련되는 기재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였다는 보도가 있다(KOTRA). 공화국은 국내의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는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화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것이다. 3가지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본다.

① 3년간의 과도기(1994-96년)에 수행하는 혁명적경제전략중 무역제일주의방침은 97년이후 즉 과도기가 마친후 공화국의 문헌들에서 찾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 성격상, 취지상 사정인지 새해공동사설은 대외무역과 관하여 지적한바가 없다.

②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1997년에 원정리의 자유무역시장의 개설을 폐지(시장폐쇄)하였으며 그 명칭에서 자유의 글자가 삭제되고 라선특별시로 개편되었다(1998년 6월). 이 조치를 경제특구적기능이 없어지고 그에 대한 지도를 내각에 이관한것으로 본다.

③ 남조선과의 경제협력사업이 담보상태에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김대중정권이 애써 있으나 미행정부가 여기의 자금이 군사비에 돌려지고 있다는 구실로 반대하고 있으니 이 사업의 전망이 우려된다.

한편 대미관계는 미 부쉬행정부가 발족한 이후 공식대화는 중단되고 있으며 대일관계는 2000년 10월 제11차 조일국교교섭이 중단된 이후 아무 변화를 보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미, 조일관계는 상대측의 반공화국연동으로 말미암아 당분간 사태전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태를 타개하는데 있어서 공화국이 2001년에 벌인 외교활동은 매우 상징적인 사변이었다. 특히 로씨야연방과의 경제교류협조관계의 개선강화는 전력과 철도운수들의 긴장성을 풀어줌으로써 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주는 작용을 기대할수 있다. 다만 공화국의 경험은 대외사업, 대외경제사업을 몇개 나라들에 치중하면 불안정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강성대국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계속 대외관계와 대외경제관계를 개선강화하여 나갈것이다.

- *1. 『朝鮮大学校学報』1998년 3월 51 페이지
- *2. 《로동신문》' 02년 1월 28일
- *3. 《로동신문》' 02년 2월 6일
- *4. 《로동신문》' 02년 1월 28일
- *5. 라동구<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관 리형태>《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2001년 1)
- *6. 우와 같은 문헌
-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에서 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양형섭부위원자의 보고
- *8. 국가예산액과 성장률추이(表 国家予算額と伸び率の推移)
- *9. 《로동신문》' 02년 1월 3일
- *10. 《로동신문》' 02년 1월 7일
- *11. 《조선신보》' 02년 1월 14일
- *12.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에서 한 홍성남총리의 보고.
리창혁<우리 당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고수와 경제강국건설의 성과적추진>
《경제연구》' 01년 4
- *13. 리창혁 우와 같은 문헌

国家予算額と伸び率の推移

(単位: 100万ウソ, %)

年度	歳入	伸率	歳出	伸率
1980	19,139	9.5	18,837	11.0
1981	20,684	8.1	20,333	7.9
1982	22680	9.6	22,204	9.2
1983	24384	7.5	24,019	8.2
1984	26,305	7.9	26,158	8.9
1985	27,439	4.3	27,329	4.5
1986	28,539	4.0	28,396	3.9
1987	30,337	6.3	30,085	5.9
1988	31,906	5.1	31,661	5.2
1989	33,608	5.3	33,383	5.4
1990	35,690	6.2	35,513	6.4
1991	37,195	4.2	36,909	3.9
1992	39,540	6.3	39,303	6.5
1993	40,571	2.6	40,243	2.4
1994	41,620	2.6	41,442	2.4
1995	24,300	-41.6	24,200	-41.6
1996	20,300	-16.5	20,600	-14.9
1997	n.a	n.a	n.a	n.a
1998	19,791	n.a	20,015	n.a
1999	19,810	0.1	20,018	0.0
2000	20,453	3.2	20,453	2.2

(注)2000年度は予算額。

(資料)1994年度は『朝鮮中央年鑑』1995年版。1995年、1996年度は文浩一「94-96年の国家予算の推移と特徴」『月刊朝鮮資料』1999年6月号(原資料は、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1999年度決算、2000年度予算は、『朝鮮時報』2000年5月26日、その他は『月刊朝鮮資料』掲載、各年度の財政報告より作成。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대한 몇가지 평가(제 15 보)

—최근시기 토지개량사업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수 사공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논과 밭은 개간된지 오래고 대부분 비탈진 곳에 있기때문에 미량원소를 비롯한 영양분이 비물에 많이 씻겨 내려 가 적박하며 산성화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 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려면 논밭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

《경제연구》 주체 90(2001)년 2 호

주체농법의 요구의 하나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지방들에 분포되어 있는 토양의 류형과 그의 분포특성, 그리고 토양형성인자들 인 기후조건, 지형조건, 식물피복을 비롯한 자연지리적조건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 특 성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토양리용을 위한 인간의 활동, 즉 경농력사로 인하여 토양특성 이 변화된것을 알아야 한다.

토지를 잘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지속적(持續的)인 농업생산을 하는데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 여서는 토지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시기 우리 나라에서 추진중에 있는 토지건설사업의 중요과업인 토지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토지건설사업의 다른 하나의 과업인 토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서는 《조선대학교학보 17 호》(2001 년)에서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량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①불리한 토양을 효과적으로 리 용하기 위해서이다. ②우리 나라는 농경지가 제한되며 개간된지 오래기때문에 토양의 열화 현상(劣化現象, 老朽土壤)이 일어 나고 있기때문이다. ③또한 토양침식이 일어나 토심이 얕아지고 그 결과 함수능력(含水能力)이 저하되어 가는 위험성이 크기때문이다.

토양개량의 내용은 ①토양온도를 조절하는 문제 ②토양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절, 또는 개선하는 문제 ③토양의 기계적조성을 개선하는 문제 ④토양의 수분을 조절하는 문제 ⑤객토작업을 잘 하는 문제 ⑥석회(石灰)치기 ⑦유기질비료와 다량원소비료를 배합하여 시비하는 문제, 미량원소비료의 시비 등 전반적인 과학적시비체계의 확립문제이다.

토양개량의 방법

1. 토목공사를 요하는 방법이다. 관개체계의 확립, 배수체계(排水体系)의 확립(특히 랭습지,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 자주 물이 고이는 저지대의 개선 등이다. 2. 화학적방법이다. 즉 석 회질물질로 중화하여 토양개조를 하는 방법이다. 3. 농업기술적인 방법이다. 객토작업, 루수 방지(漏水防止)사업, 심경(深耕)작업, 농토의 갈이작업(起耕作業)을 수시에 실시하는 방법, 토지관리의 합리화, 유기질비료의 시비 등이다. 4. 토양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진행하는 방법 이다.

토양구조개선

①농경지의 관리를 잘 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심경이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 공기계(空氣系)가 개선되며 모세관현상으로 상승한 수분이 심한 바람에 의하여 증발하는 현상을 방지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봄철에 강한 바람이 부는 지방들이 많다. ②토양내의 부식을 증가시키는것과 동시에 유기질비료, 린(P)비료를 다량 시비한다. ③산성토양에 석회를 혼합시켜 Ca^{2+} 의 량을 증가시키고 토양의 물리화학적성질을 개선한다. ④간작(間作)을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⑤미량원소(특히 B, Mo)를 보충한다. ⑥소토(燒土)작업을 농토의 지대별특성에 맞게 넓은 범위에서 실시한다.

토양개량 대책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대책을 세웠다. 1. 전국적인 범위에서 전반적인 토양조사사업의 실시이다. 2. 토층의 생성과정과 토양구조 및 포전별 비옥도(肥沃度)에 대한 연구분석에 기초한 필지별 토양분석표의 작성이다. 3. 지대별 농작물배치계획과 시비체제 등을 작성이다.

토양개량의 대상지

우리 나라에서 개량해야 할 대상토양은 ①산성토양 ②열화된 논토 ③루수하는 토양 ④랭습지토양 ⑤점토질의 밭토양 ⑥간석지토양 ⑦부석층의 밭토양들이다. 그 대상토지는 마른 땅, 랭습지, 산성화된 땅, 비옥도가 낮은 땅, 유해성분이 있는 땅, 모래자갈이 많은 땅이다.

<표-1>에 우리 나라 농업토지의 도별면적을 주었다. 우리 나라 농업토지는 대체로 토지면적의 16.4 %이며 그 구성은 논과 밭, 과수밭, 뽕밭, 묘목지, 호두밭, 대나무밭, 갈밭을 비롯한 경작지와 기타 비경작자들이 속한다.

I 산성토양의 개량

우리 나라의 산성토양의 특징은 지대별, 포전별로 차이가 심하다는것이다.

1)산성토양이 생긴 원인

(1) 우리 나라의 경농력사가 오래다는것과 관련된다. (2) 우리 나라에는 경사지가 많고 또한 장마시기인 7~8월이 되면 토양침식이 일어나 그 결과 특히 Ca, Mg 성분이 적어지고 그 자리에 H^+ , Al^{3+} 가 침습되기때문이다.(3) 화학비료의 시비력사가 오래고 그로 인하여 산성이온이 생긴 땅이 많아졌기때문이다. (4) 합리적인 물관리를 하기 어려운 토지가 있기 때문이다. (5) 농약산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6) 농작물재배과정에 영양성분의 선택적소비가 진행되는것과 관련된다. (7) 연간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비옥도가 낮아졌기때문이다.(8)랭습지에서 유기물질의 분해가 잘 진행되지 않고 유기산이 생기는것과 관련된다.

(9) 바다, 호수, 소택지(沼沢地)에 있는 산성물질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었다. (10) 하천에 강한 산성을 띤 물이 류입하는 경우와 관련된다. 공장, 광산 등에서 산성물질의 물 (레킨데 SO₂ 가스 포함)이 류입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11) 본래 산성이 강한 토질이 분포된 지역

2)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대책

지대별 토양특성을 고려하면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다.

①일반적으로 논토양에서는 산성화과정이 잘 진행된다. 이것은 벼재배가 약산성화된 토양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련된다. ②밭토양에서는 갈매화과정에서 산성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③습윤토양에서는 산성화가 보다 활발히 진행된다. 따라서 논, 밭, 습윤지대에 대한 산성화방지대책 및 토양개량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최근시기 우리 나라에서 토양개량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산성토양이 감소된 지역은 함경남도 정평군, 평안남도 대흥군, 평안북도 향산군, 평안북도 천마군 등지이다. (지도 참조)

3) 산성화된 토양의 개량방법

첫째로, 화학적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석회를 리용하여 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

최근시기 우리 나라에서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다음과 같다. ①치환산도, 흡착염기총량, 염기포화도 등이 개선된 것이다 ②토양내의 유기물질의 분해속도가 촉진된 것이다. ③용해질소(N)의 분해속도를 촉진한 것이다. ④용해린(P), Si, Mo의 함유율이 제고된 것이다. ⑤토양의 물리적성질이 개선된 것이다.

(2) 카바이트재를 리용하여 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

(3) 토양의 영양계와 물리적성질을 개선하는 방법

①토양에 부족한 P, Si, B, Mg, Mo 등을 보충하는 방법 ②유기질비료의 시비 ③토양의 물리적성질을 개선하는 방법

둘째로, 물리적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개선대상지는 ①갈이층을 증가하여야 할 토양 ②땅속이 굳은 토양 ③배수가 잘 안되어 습한 토양들이다. 개선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①포전에 따라 규산석회성분이 20 % 정도 포함된 석회를 뿌린다. ②망간광재를 리용한다. ③여러가지 재(灰分)를 리용한다. ④미량원소(B, Mg, Mo)를 리용한다.

<표-2>에 산성화토양의 개량과 관련한 성과를 년대별로 주었다.

II. 열화되어 가는 논토양의 개량

1) 우리 나라에서 열화(劣化, 老朽)된 토양이 분포한 지역

①경농력사가 오랜 지대 ②일부에 저습한 논토양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③꼭지에 논토양이 분포한 지역 ④소택지(沼沢地)에 논토양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⑤간석지토양이 분포한 지역 ⑥해성, 호성 충적지성의 토양이 분포된 지대

2)우리 나라에서 토양이 열화된 원인

①벼를 오래동안 재배하는 과정에 영양물질이 선택적으로 흡수된것과 관련 ②영양물질의 류실, 특히 자연류실이 원인으로 된 경우 ③농작물의 재배방법과 성장시기에 요구하는 영양성분에서 차이가 생길때가 있기때문이다. 즉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일시적으로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우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

① H_2S 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객토작업(客土作業)을 잘 하는것이다. 특히 철분(Fe)이 많은 토양, 즉 적색토양은 객토를 많이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②토양의 립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객토작업을 잘 한다. ③배수체계를 확립한다.④토양에 알맞는 미량원소를 목적의식적으로 시비한다. ⑤관개사업을 잘 한다. 관개는 관수(冠水)를 시기 적절하게 하는 동시에 배수도 잘 한다.농작물의 성장시기에 일정한 기간 논을 말리는 대책을 세우는것이 유익하다. 토양을 대기와 충분히 접촉하게 하고 말리면서 산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작물을 수확한 직후의 가을갈이(秋耕)가 효과적이다.⑥부식물과 규소(珪素) 비료를 계획적으로 시비한다. 이를 위한 시비체계를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Ⅲ. 루수하는 논토양의 개량

우리 나라에서 루수(漏水)하는 논토양의 분포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모암이 화강암, 화강편마암 등 심성암인 토양 ②산지에 분포된 토양 ③모래가 많은 논토양 ④꼭지의 토양, 하천상류부의 토양, 하상자리(河床跡)등 토심이 얇은 토양 ⑤하안단구면, 해안단구면의 토양 등이다.

우리 나라에서 벼재배에서 요구되는 토양의 물량을 논을 기준으로 한 물의 침투량을 고려하면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소출이 낮은 논토양 3~5 mm/day, 모래가 많은 논토양 30~100 mm/day, 토심이 얇은 논토양 30~100 mm/day 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저수지의 규모와 몽리면적(蒙利面積)을 고려할때 논토양의 물침투량은 대체로 3~5 mm/하루평균 이하가 되어야 한다. 1ha 의 논에서 하루당평균 10mm 물이 새면 1년간에는 1ha×m(町米)에 해당되는 물이 류실하는 셈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알곡 1t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을 1000 t으로 보고 있다.(세계호소회의 : 世界湖沼會議, 2001년 11월)얼마나 물이 요구되는가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 나는 루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와 관계된다.

①토양의 립자크기가 0.05 mm이하에서는 물의 침투량이 작아진다. 그러나 1 mm(주로 모래질)이상으로 되면 갑자기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②토양의 치밀도와 크게 관계된다. ③토양의 구성물질의 크기와 관련된다.레컨데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 50~80 mm/day 정도이다.그리고 점토가 함유되는 경우는 작아 진다. ④토심의 두께와 관련된다.모래와 자갈이 혼합되고

토심이 큰 경우에는 20~30mm/day 정도이다. 그리고 토심이 작은 경우에는 30~50mm/day가 된다. 물이 새면 가용성양양물질이 류실하게 된다. <표-3>에 가용성물질의 류출량을 주었다. ⑤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양온도, 눈물온도가 낮아 진다. 이것은 물이 새어 항상 수온이 낮은 물이 관개수로 류입하기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5~6 월(모내기시기)에 눈의 수온은 3~5 °C정도 낮아 진다. 그리고 토양온도도 0.5~1°C정도 낮아 진다. 7~8 월(벼 성장기)에는 눈수온이 0.5~2 °C 정도 낮아지고 토양온도도 0.2~0.5 °C정도 낮아 진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책

1)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고려할 때 객토를 10 cm이상하는것이 효과적이다. 객토작업은 루수방지의 기본작업의 하나가 된다.

객토를 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①물이 새지 않게 되었다. <표-4>에 객토의 물침투효과를 주었다. ②객토의 결과 토양에 영양물질이 보충되었다. 특히 K, P, Mg, Ca, 미량원소(Mn, Cu, Zn, B, Mo)가 보충되었다. ③객토와 함께 퇴비를 주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2) 같이층 밑층에 물이 새지 않게 점토를 깬다.

3) 록비작물(綠肥作物)을 재배하여 유기질성분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IV. 랭습지토양의 개량

우리 나라에서 랭습지토양이 분포한 지역은 고산지역, 고원지대(대흥단, 북부의 고원지대)들이다.

랑습지토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토양온도가 낮아 유기질물질이 잘 분해되지 않는다. 이 겨우에는 눈에서는 지온이 3~4°C정도 낮아지고 밭에서는 2~3°C정도 낮아 진다. ②질소(N)비료의 효률이 낮아 진다. ③기계화도입이 곤란하게 된다. ④밭토양의 공격(空隙)이 부족하고 공기의 포함량이 적어 진다. 따라서 뿌리의 호흡에 지장을 주게 된다. ⑤공기계가 약하여 공기가 없어도 자라는 류산화원균의 활동이 활발해 진다. ⑥공기계와 수분계가 약해지고 미생물의 활동이 미약해진다. ⑦일반적으로 밭에서는 깊이가 30~80 cm층에서 과습상태가 될 경우가 많다. ⑧밭토양온도가 낮아 진다. 보통 3.7~4.5°C 낮아 진다. 이 현상의 특징은 계절변화가 거의 없다는것이다. 그리고 CO₂의 포함량이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0.32 %에 도달할 때가 생긴다. 이것은 산소함유가 낮아 지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대책

기본은 배수대책을 세우는것이다. 도랑파기와 우물파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V. 점토의 함량이 많은 밭토양의 개량

우리 나라에서는 점토토양의 분포지역은 비교적으로 넓다.

주되는 분포지역을 지질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현무암지대 ②제 3 기의 퇴적암지대, 즉 퇴적암갈색토양지대 ③석회암의 풍화층, 또는 풍화각(風化殼)이 분포된 지역 ④편마암의 고평화층(古風化層)이 분포된 지역 ⑤산등선부근에 있는 토양 ⑥분지와 고원의 평탄한 지대의 토양

또한 분포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평양시 주변—구릉의 등성이에 분포된 적갈색토양, 고평화석회암질갈색토양 ②황해북도—황주평야의 밭에 분포된 고평화석회암질갈색토양 ③강원도—고산, 세포의 현무암질밭토양 ④황해북도—신계~곡산의 미루등평야 ⑤자강도—중강일대 ⑥함경남도—단천의 지초덕, 정평~금야 일대의 고평화편마암질갈색토양 ⑦함경북도—무산~연사의 삼장덕, 홍암덕, 회령, 온성의 제 3기 퇴적암질갈색토양, 새별, 은덕, 두만강연안의 밭토양. 명천와 화대(장덕), 어랑 일대 ⑧량강도—황수천의 현무암질밭토양, 보천일대의 현무암질밭토양 ⑨두만강연안의 덕지대의 밭토양

점토질토양의 특성

토양의 성질은 ①건조하면 굳어지고 비가 오면 끈질게 된다. ②산성이 매우 강하다. ③가 물피해를 쉽게 받는다. 이 토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점토함량은 보통 45~70 %이다. ②점착성(粘着性)이 크다. ③잘 합친다(まとまり易さ). ④잘 덩어리진다(かたまり易さ). ⑤전반적으로 토질이 좋지 않다. ⑥토심은 있기는 하지만 농업에서 리용되는 유효토심은 얇다. ⑦침수성이 낮아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⑧통기성이 낮다. 수분이 많고 토양구조가 나쁘다. ⑨속층에서 갈매화과정이 진행된다. ⑩가물철에는 굳어 진다. 따라서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다. ⑪부식물의 함량이 매우 적다. 일반적으로는 Mn, N, P, Mg, K, B가 부족하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대책

①물리적성질을 개선한다. ②심경을 한다. 심경은 특히 덕지대(棚地)의 니암질(泥岩質)의 퇴적암갈매화밭토양에서 효과적이다. ③틀취갈이가 효과적이다. 아래층과 우층의 토양을 갈아 바꾼다. ④덕지대에서는 석탄재를 친다. 특히 갈탄산지 및 소비지에서는 석탄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⑤배수체계의 확립 ⑥장기간에 걸쳐 퇴비를 다량시비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두만강류역의 회령군, 온성군(왕재산농장), 량강도의 대흥단종합농장, 함경북도 새별군, 은덕군, 그리고 함경북도의 길주군~명천군일대, 함경남도의 금야군, 정평군의 봉대농장, 평안남도의 안주군 일대들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시기 토양개량사업에서 경험을 축적한 지역을 <지도>에 주었다.

VI. 간석지토양의 개량

간석지토양의 특징 ①보통 염(NaCl)포함량이 0.5~2.0 % 정도 있다. ②물리적성질이 좋지 않다. Na^+ , Mg^{2+} 가 많다. Ca^{2+} 가 적다. 립자크기가 0.25 mm 정도가 많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옥도가 낮다. ③류화물이 많이 생긴다. ④부식물과 N분이 적다. 반면에 가용성의 P, K,

Si가 많다. 미량원소에서는 Zn은 적고 Mn, B, Cu이 많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대책

무엇보다도 소금기를 빼는것이다. 1)물리적방법 ①물로 소금기를 씻어내는 방법 ②양어장 등을 건설하여 염분을 조금씩 제거하는 방법 ③도랑을 리용하여 소금기를 포함한 물을 바다에 방수하는 방법 2)화학적방법 ① Ca^{2+} 를 함유한 염류를 첨가하여 중화시키는 방법. 폐천데 CaCO_3 등이 효과적이다. ②점토광물인 산성백토(酸性白土: Al_2O_3 , SiO_2)를 객토한다. 산성백토는 치환용량이 적기때문에 다량 객토하는것이 좋다. 치환용량이란 토양이 한번 흡수저축한 비료성분을 다시 방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③환원장애를 막는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하면 H_2S 가 잘 생기지 않다. 3)생물학적방법 ①초목의 재를 뿌린다. ②염류를 잘 흡수하는 식물을 재배한다. 4)염류가 모세관을 따라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VII. 부석층에 위치한 밭토양의 개량

우리 나라에서 부석층(浮石層)이 분포된 지역은 량강도의 백두고원이다. 여기는 량강도면적의 1/3을 차지한다. 보천군의 운남리, 대신리, 보흥리, 대흥리, 백암군의 신전리, 백암로동자구, 운흥군의 생강로동자구, 령하로동자구들이다.

부석층의 두께는 백두산, 북포태산 지구는 1m 이상, 남포태산지구는 0.5~1m 정도이다. 부석층의 특성

①투수성이 크다. ②가용성린함유량이 적다 ③흡수능력이 적다. ④밭으로 일군 력사가 오래지 않다. ⑤산성화정도는 밭으로 리용한 력사에 따라 포전별로 각이하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대책

1)약간의 부석층이 있는 지대의 밭토양

①심경이 효과적이다. ②높은 이랑식재배법의 도입 ③부석층을 지나 저지에서 용출하는 물을 빼기 위한 배수체계의 확립 ④토양의 산도를 고려하면서 석회, 린비료, 유기질비료를 시비

2)부석층이 20cm이하의 현무암풍화토양.

이러한 토양의 분포지역은 량강도의 지방들이다. 삼지연군(포태농장), 백암군(동계로동자구, 박천로동자구, 서두리, 상담리), 보천군(호산리, 대평로동자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①심경의 실시 ②유기질비료, 린비료의 시비와 석회치기의 합리적 실시 ③현무암풍화토에 부식물을 혼합하는 작업.

3)부석층이 20cm이상인 현무암풍화토양.

분포지역은 량강도이다. 대흥단군(신덕로동자구, 농사로동자구, 흥남로동자구), 백암군(유평로동자구, 덕립로동자구, 황토리, 천수로동자구, 원봉로동자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①현무암풍화층까지지는 토심이 있다. 따라서 표층까이의 층을 갈아엎고 리용한다. ②유기질비료, 린비료의 시비 ③계획적인 객토작업 ④니탄산지(백암군 간장늪~큰늪)에서는 니탄을 리용하여 농작물의 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흡수능력은 보통 6~7 mg/100g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맺음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정리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토양개량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되었다. 토양개량사업은 토지보호가 잘 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책이 세워졌다.

①하천정리를 잘 한다. 여기에서는 공고한 제방건설, 류역의 자연지리적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깊은 연구와 종합, 그 분석에 따라 수행되는 사행하천(蛇行河川)의 직선화, 하상(河床)파기 등이 속한다. ②전국적인 범위에서 산림조성의 실시 ③토지보호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지역에 따르는 보호구간의 설정 또한 시기적인 립시보호구간의 설정을 하였다. ④배수체계의 확립과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의 정상화 ⑤토지류실의 방지. 농경지부근지역에서의 식수사업, 경사지에 우회수로건설, 제방건설, 그리고 사방공사의 실시. 사방공사는 사방림 조성, 사방야계공사, 류사(流砂)방지용 제방건설 등이다. ⑥경사도가 급한 지역의 토지리용대책을 세웠다. 특히 경사도가 16° 이상지역에의 계단식과수원건설 등이다. ⑦토양침식이 일어나는 지대에는 풀밭 등 초지(草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1)전반적인 지역에서 특히 하천상류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산림조성사업 (2)특별자연보호구 및 립시자연보호구의 설정 (3)보호림의 조성(방풍림, 사태방지림, 풍치림, 수원함양림)(4)사방야계공사대상지의 설정과 구조물의 건설 (5)광산개발과 관련된 박토처리, 버력처리를 잘 하며 또한 지하자원을 개발한 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의 강구 (6)토양침식방지(등고선경작, 대상경작(帶狀耕作), 계단식경작)대책을 세웠다.

토지개량의 대상지는 다음과 같았다. ①마른 땅, ②랭습지, ③영양분이 부족한 땅, ④산성화된 땅, ⑤유해성분을 함유한 땅, ⑥모래와 자갈이 많은 땅들이다.

최근시기 가장 힘을 집중한 사업은 습지대의 건전화(乾田化), 건조지의 관수, 산성토양이 분포된 지역에서의 객토작업이었다. 그리고 토양수분의 조절, 석회치기, 심경작업, 토양구조개선, 유기질비료주기, 과학적시비체계의 확립 등이었다. 이리하여 토양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현단계에서 토양개량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토양의 물리적성질이 개선되었다. 그것은 ①토양수분조절 ②토양온도조절 ③토양의 기계적조성의 개선 ④토양구조개선 등이다. 둘째로, 토양의 화학적성질이 개선된것이다. ①산성토양의 개량 ②다량원소비료의 공급 ③미량원소비료의 시비 ④유해물질의 제거 등이다.셋째로, 소금기를 잘 흡수하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토양개조사업을 추진한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경농력사가 오랜 지역은 토지정리사업을 중심에 두면서도 토지개량사업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부단히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이었다.

[주요 참고문헌]

김일성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적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1962년 2월 1일)

김일성 우리 나라 혁명과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349~350pp)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3권 28p)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96년 4월 22일)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1996년 8월 11일)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1998년 1월 16~21, 6월 1일, 10월 20~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986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1977년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1992년 12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1992년 4월 8일)

조선하천관리규정 (1991년 7월)

조선국가지하자원보호, 관리 규정 (1991년 8월)

로동신문 1995년~2001년 조선신보 1995년~2001년

司空俊 朝鮮の土壤(1981) <今日の朝鮮>3月号

司空俊 主体農業の確立 農業テーゼ 20周年記念論文(1984) <朝鮮時報>10回連載

사공준 공화국북반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그 평가 -토지자원을 중심으로-
(1997) <사협논문집>

사공준 조선의 토지자원에 대한 몇가지 고찰 (1998) <사협논문집>

司空俊 朝鮮の自然地理的条件に関する研究レポート

-農業土地構成と耕作地を中心にして-(1998) <朝鮮大学校学报>

사공준 조선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토지건설사업 -최근의 토지정리사업을 중심으로-
(2001) <조선대학 학보>

<지도> 토양개량사업에서 경험을
축적한 지역(2001/11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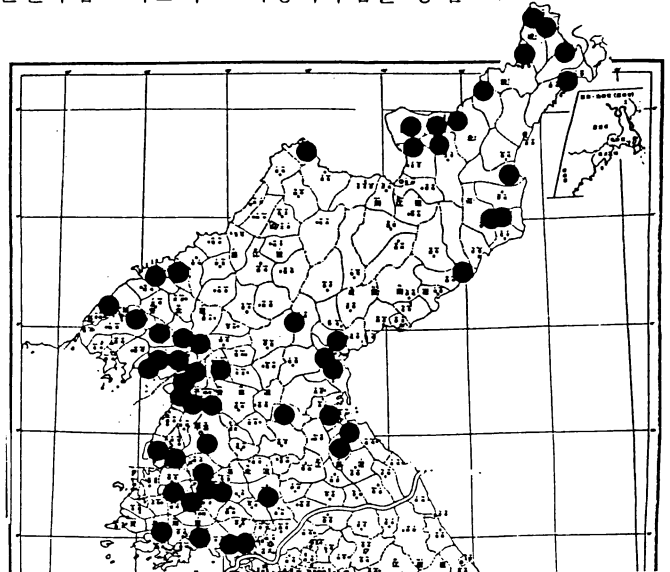


표-1 우리 나라 논과 밭 면적(1000ha)(작성 2001)

	농업토지	논토지	밭토지
자 강 도	105	9	83
평안남도	286	110	148
평안북도	249	102	119
평 양 시	89	32	46
남 포 시	32	16	13
황해북도	218	56	135
황해남도	341	164	126
개 성 시	32	14	14
량 강 도	85	2	82
함경북도	177	26	131
함경남도	212	67	109
강 원 도	166	46	95
전 국	1993	642	1101

논면적은 년도에 따라 585~ 642(1000ha)

밭면적은 년도에 따라 982~1101(1000ha)

표-2 산성화토양의 년대별 면적비율(%)

년 대	논토양	밭토양
1969	42	42
1974	34	32
1978	29	34
1982	22	33
1984	18	28
1986	17	26

표-3 우리 나라 가용성물질의 류출량(kg/ha.년)

	평균침투	N	P ₂ O	CaO	MgO	Fe ₂ O ₃
사질토양	12 mm/d	64.2	14.2	622	170	8.6
양 토	7.1 mm/d	51.4	9.3	563	178	13.7

표-4 객토의 물의 침투효과

	침투속도(mm/day)
개토하지 않은 논	32.6
개토를 한 논	11.5

《실천》이란 무엇인가

조선대학교 강사 최 권 일

일찌기 칼 맑스는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러저러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꾸는것이다》고 말했다.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의 거세찬 바람속에서 현재 인간에 의한 실천은 극히 이그러지게 나타 나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끊임없이 상실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 분출하는 비인간적인 제현상에 대한 비본질적인 해석과 핑계가 판을 치는 현시기 인간실천에 대한 원래 의미를 주체적시각을 가지고 상기하는 작업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1. 《실천》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맑스의 실천개념

실천개념을 철학적으로 고찰한다고 할 때 2가지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인간실천의 근본요인, 그 속에서도 주체적요인에 관한 문제, 다른 하나는 인간 실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 즉 실천과정에 관한 문제라고 볼수 있다.

본론고에서는 전자에 중점을 놓고 주체적실천론의 출발적 원리를 고찰하도록 한다.

근대의 합리론과 경험론은 인식론을 전개하여 인간활동의 주체적요인에 관한 문제를 철학적제마로서는 뚜렷이 제기를 안했다. 근대에 들어서서 인간활동의 주체적요인이라는 문제성은 칸트의 사상을 통하여 뚜렷이 부각이 되었다. 칸트는 도덕법칙으로서의 정언명령(定言命令)이라는 사상을 통하여 인간행위를 촉구하는 요인을 당위성이라는 형태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칸트의 정언명령은 현실적근거와 내용을 안가지는 극히 형식적인 명령이었으므로 그 당위성도 극히 주관적인것으로 주장되게 된다. 칸트는 자연법칙을 인정하면서도 인간활동의 근본요인이 자연법칙에 환원되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인간행위의 당위성이라는 문제를 상정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의 2 원론적 모순, 즉 인간활동의 객관적요인과 주관적요인을 통일시킬데 대한 요청은 이후 독일고전철학의 주요제마를 이루어 피히테, 쉔링을 거쳐 헤겔에 의하여 객관관념론이라는 형태로 완성을 보게 된다.

만물의 발전원리를 《절대리념의 자기실현》이라는 사상으로 제기한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실천의 근본요인이라는 제마에 다음과 같은 시사를 준다.

《자기의식에 있어서 그저 살고있다는것, 단지 그날살아를 한다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나타나면서도 살아지는 나날들속의 핵심을 이루는 일관된것-순수한 자립성(주체성)-이야말로 귀중하다는것도 생명을 걸어야 확증된다.》¹⁾

헤겔이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는 자기의식이라는것은 인간존재가 자체의 자립성, 주체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사도 그 농후한 사변적성격에 의하여 포이

엘바하의 사상을 거쳐 맑스주의에로 이행되어 나가는 과정에 인간존재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원리적인 해명이라는 방향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헤겔과 맑스를 매개한 포이엘바하는 헤겔철학의 사변성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헤겔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제기된 인간존재를 살아 활동하는 산 인간으로, 자연에 그 존재론적기초를 둔 현실적인 인간으로 정립하였다.

맑스는 포이엘바하의 유물론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유물론의 견지에 올라서게 된다. 맑스에 의한 새로운 유물론의 견지는 그의 메모, 《포이엘바하에 관한 테제》에서 단편적인 형태로 세상에 알려졌다.

《포이엘바하에 관한 테제》제1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제까지의 모든 유물론(포이엘바하의 사상까지 포함하여)의 주요한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이 단지 객체, 혹은 관조의 형식에서만 파악되어 왔으며 인간적인 감성적 활동,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²⁾

또한 《감성, 현실, 대상》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자신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직접적으로는 자연존재이다. 자연존재로서, 더군다나 살고 있는 자연존재로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적 힘, 생명력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활동적인 자연존재이다. 이러한 힘들은 인간의 내부에 각가지의 소질, 능력, 충동으로서 실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인간은 자연적인 육체를 가진, 감성적, 대상적인 본질로서 동식물이 역시 그러하듯이 하나의 수고(受苦)하는, 제약을 받으면서 제한되어 있는 본질이다. ...인간이 육체를 가진, 자연력을 가진, 살아있는, 현실적이며 감성적이며 대상적인 본질이라는것은 그가 현실적이며 감성적인 대상을 그의 본질, 그의 생명발현의 대상으로 가진다는것, 혹은 그가 유독 현실적인 감성적 대상에 의해서만 그의 생명을 발현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³⁾

이러한 맑스의 사상을 독자적으로 전개하여 전후 일본의 유물론계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한 소위《객관적유물론》의 오류와 제한성의 극복을 위하여 날카로운 제언을 해 온 다나카 기찌로꾸(田中 吉六)씨의 연구는 인간실천의 주체적요인을 고찰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다나카씨에 의하면 전후 일본의 유물론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객관적유물론》의 근본적인 오류는 인간에 의한 실천활동을 자명한 전제로 하여 그 론리구조를 깊이 음미함이 없이 넘긴데에 있다는것이다. 실천에 대한 표명적인 리해에 기초하여 전개된 리론들은 결국은 인간실천을 물질적, 객관적 법칙의 관철과정의 한 계기(契機)로 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객관주의적 편향을 필연적으로 낳게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객관주의적 편향은 맑스의 의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 물심(物心)²⁾ 분론적반영론(反映論)을 그 방법론적 기초로 하면서 리론실천적으로 여러가지 편향을 낳게 하였다는데서 표현되었다.

물심 2 분론적방법은 인간활동의 근본요인을 객관세계의 발전법칙과 그 법칙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의식에서 찾음으로 인간존재로 하여금 객관법칙의 관철자로서의 위치와 역할 밖에 부여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객관세계, 물질세계의 법칙을 떠난데에 순수한 인간활동의 근본요인을 찾게 되면 관념론적편향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부터 그는 맑스주의철학에 대하여 독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깊이게 된다.

다나까씨는 맑스의 수고(受苦)의 사상을 전개하여 인간실천의 주체적요인을 인간과 자연과의 변증법적모순관계에서 찾고 있다.

《인간은 대상적자연에 의하여 조정(措定)되면서 존재한다. 그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존재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연과 대립하고 모순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 모순을 지양하고 자연과의 동일성을 조정(措定)된 동일성으로서 회복함이 없이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소멸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러한 근본규정에 인하여 인간은 자연과 교섭하는 존재=실천주체로 되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다.》⁴⁾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감성이 객체(이 객체속에는 응당 주체로서의 객체도 포함되어 있다)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수동적·수고(受苦)적본질[존재]임으로 하여, 단지 이 때문에 그것이 또한 그 외적대상을 향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하나의 정열적본질>, <하나의 활동적자연본질>(《초고》)로 된다는것》⁵⁾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초기의 맑스의 사상이 경제학적개념으로 확립된것이 노동과정론이라는것이다.

《로동은 우선 첫째로 인간과 자연사이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와 자연과의 물질대사(物質代謝)를 자기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매개하고 규제하며 통제한다. 인간은 자연소재에 대하여 그자신 하나의 자연력으로서 맞선다. 그는 자연소재를 자기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리용할수 있는 형태로 획득하기 위하여 자기자신의 육체속에 준비된 자연력, 팔이나 다리, 머리카나 손을 움직인다. 인간은 이 운동에 의하여 자기의 밖에 있는 자연에 작용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기자신의 자연을 변화시킨다.》⁶⁾

맑스가 밝힌바 같이 인간실천을 그 원초적형태에서 볼 경우 물질과 물질의 호상작용이라는데까지 환원할수 있다. 이 환원은 인간적활동이 아무런 신비적성격을 띠지 않는다것과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인간에 대한 제한적측면 즉 인간존재가 로동을 통한 객관세계와의 부단한 교섭이 없이는 그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음을 밝혀주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즉 실천이 인간의 존재방식이라는것을 유물론에 립각하여 기초지었다고 말할수 있다.

문제는 인간실천이 물질세계의 호상작용속에서도 극히 특수한 호상작용, 인간적형태를 띤 호상작용이라는데 있다. 그 특수성에 있어서의 주체적요인을 밝혀야 한다는것이다.

실천의 주체적요인을 수고(受苦)에서 찾는 견해는 실천의 유물론적 기초를 밝힌것으로써 그 인간적 특징을 밝힌것으로는 보지 못한다. 또한 노동과정자체는 인간존재와 자연과의 물질대사과정의 특수성을 밝힌것으로써 실천의 주체적 요인을 밝힌것은 아니다. 즉 맑스의 사상이 인간존재와 객관세계와의 호상작용이 물질과 물질의 호상작용 즉 인간과 자연과의 물질대사(物質代謝)라는 시각을 가지고 전개됨으로써 인간활동의 유물론적기초로서의 수고(受苦)와 그 형태로서의 노동과정은 밝히게 되었으나 인간과 세계의 호상작용의 매개적계기(媒介的契機)로서의 주체적요인이라는 인자(因子)에 대하여 주목을 돌리지 못했으므로 따라서 인간과 세계와의 호상작용의 특수성의 근본요인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2) 무신론적실존주의와 실천사상

이 문제를 인간의 물질성을 사상(捨象)한데서 추상적으로 제기한 사상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이다.

무신론적실존주의의 제창자의 한사람인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우선 먼저 주체적으로 자기자신을 사는 투기(投機)이다. 이 투기에 앞서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인간은 무엇보다 스스로 이렇게 되자고 의지한 존재는 아니다. ...소위 의지보다도 보다 더 근원적인, 보다 더 자발적인 그 어떤 선택의 표현임에 다름없는것이다.》⁷⁾

사르트르의 투기(投機)의 사상은 인간실천의 근본요인을 초월적인 신(神)이나 그 어떤 외적요인에서 찾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인간존재가 자기자신을 창조해나가는 실천주체라는 데에서 찾는 견해이다. 투기에 앞서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것이다. 그는 투기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유이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이다. 혹시 한편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치나 명령을 눈앞에 볼 수는 없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배후에도 또한 전면에도 명확한 가치의 영역에 있어서 정당화를 위한 이유도 핑계도 안가지고 있다는것이다. 우리는 핑계도 안가지면서 고독하다. 그것을 나는 인간은 자유의 형에 처해져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⁸⁾

사르트르는 인간행위의 근본요인이 인간존재의 실존성 즉 자기자신이 자기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할 존재라는데 있으며 그를 위하여 자신을 투기하는 인간은 환경세계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항상 그것을 뛰어 넘어가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에는 인간행위의 근본요인을 인간주체의 외부에서 찾자는 제사상에 대한 강한 저항을 볼수 있다.

사르트르의 《투기》(投企)와 《자유》의 사상에 대표되는 무신론적실존주의는 구라파적 리성주의가 제기하지 못한 인간행위의 근본요인이라는 문제를 뚜렷한 철학적제마로 제기하고 그것을 인간주체에서 찾자고 하였다는데서 철학적 인간론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다. 나아가서는 유물론적반영론의 귀결로서의 법칙관철자로서의 인간이라는 인간관에 대한 사상적인 충격으로 되었다는데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체사상의 출발을 순수한 《자기》, 즉 인간존재가 지니는 물질성, 역사성, 법칙성을 사상(捨象)한데에 남는 순수한 《나(私)》에 극한시켜 실천의 주체적 요인을 제기함으로써 결국은 주관주의로 나가지 아니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것자체는 인간실천의 주체적요인에 대한 진정한 해명으로는 못되었던것이다.

2. 《실천》개념에 대한 주체적고찰

1)인간주체와 주의세계의 호상작용으로서의 실천

앞에서 본 바 같이 인간활동의 주체적요인을 수고(受苦)에 환원한다면 인간적 실천과 동물적활동의 근본요인에 있어서의 질적차이를 보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실천의 주체적 요인이 객관세계의 일반적발전법칙에 환원되어서

는 안되는 한편 우에서 본 실존주의적《나(私)》라는 순수 《인간》적 요인에 환원되어서도 안된다는것이다. 즉 인간존재와 환경세계와의 호상관계를 기본구조로 가진 인간실천의 근본요인, 주체적요인이 밝혀져야 한다는것이다. 말하자면 《인간》과 세계와의 호상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결정적 인자(因子)가 밝혀져야 한다는것이다.

인간과 주의세계와의 호상작용의 특징은 그것이 인간에 의한 주의세계에 대한 능동적인 작용으로 나타난다는데 있다.

실천적유물론을 일관하게 제언하여 온 일본의 유물론자인 시바타 신고(芝田進午)씨는 인간존재가 가지는 능동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기적자연은 무기적자연에 비하여 자립성을 견지하며 대자적이었으나 물질대사라는 모순은 전자의 후자제로의 적응이라는 운동형태에 의하여 정립되면서 해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적자연은 무기적, 유기적 자연에 비하여 단지 자립성을 가질 뿐만이 아니다. 인간적자연은 무기적·유기적 자연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그것을 변혁하는것을 통하여 물질의 보편성을 발양시켜 동시에 인간적자연을 변혁하고 존속시킨다.》9)

인간존재가 주위세계와의 관계속에서 능동성을 발현한다는것은 인간존재가 주위세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내적요인을 참재시키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내적요인이란 무엇인가.

현재 실천적유물론연구에서 업적이 있는 아리오 요시시게(有尾善繁)씨는 인간실천의 주체적요인을 인간의 자기실현으로 본다.

《...인간이 자기를 실현한다는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자연으로서 존재함으로써만 인간에게 구비되는 그에 고유한 자연적제력(諸力)을 전면적으로 발현시키는것이며 감성적제대상에 의하여 전제되면서 그에 향하여 작용하여 그것을 인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것이다. 또한 그 한에서는 감성적제대상은 인간의 욕구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기실현의 대상으로 우선 존재하고 이러한 감성적제대상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자기실현이 동시에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생존의 수단으로도 되어 있으므로 자연적제대상은 인간에 있어서 그것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대상적본질>로서 인간에 상대하여 존재하고 있는것이다.》10)

인간에게 있어서의 주위세계(감성적대상)를 인간의 욕구의 대상이라는 차원과 인간의 자기실현의 대상이라는 차원에 나누어 보고 후자를 보다 근본적인것으로 보면서 양자를 통일시키는 그의 주장은 주위세계(감성적대상)에 의하여 조정(措定)된 인간이 겪는 수고(受苦)를 근본요인으로 하는 인간과 주위세계와의 변증법적 작용관계를 주장하는 다나까씨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한층 심화시킨 내용이라고 볼수 있다.

아리오씨가 주장하는바 같이 인간존재가 자기실현이라는 내적요인-주체적요인에 의하여 주위세계와 능동적으로 작용한다는것은 인간존재가 주위세계에 대하여 실현시키지 아니할수 없는 참재성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응당 그 참재성은 물질발전의 유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인간을 둘러싼 주위세계를 그 실현의 대상으로 즉 대상적본질로 가지는 그러한 참재성이다. 그러면서도 역시 그 참재성은 인간주체에 내재(內在)된 실천의 주체적요인으로 되는것이다.

이 문제에 중요한 시사를 주는것이 인간존재의 본질을 부단한 자기형성과정으로 보는 일

본의 유물론자 하시모토 쓰요시(橋本 剛)씨의 견해이다.

《인간을 <부단한 자기형성>의 과정속에서 파악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인간의 본질>을 완성된 고정적인것으로 보지 않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거기서는 <인간의 본질>은 고정적이기는 커녕 자기발전적인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물론 그것이 단지 변화가 아니라 발전인 이상 그 발전의 과정전체의 근거에는 일관한 <동일성>도 엿볼수 있다. ... 인간적본질의 <본래성(本來生)>이라고 불러우는것은 이 <동일성(同一性)>, 즉 <인간의 인간화>의 발전의 전행정의 근거를 관철하는 이 <동일성>에 다름없다.》¹¹⁾

우의 견해에서 보는바 부단한 자기형성과정에 있으면서 그 근거에 관철되는 <동일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발전의 다양한 변화과정을 관철하여 온 <동일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며 발전하자고 하는 의식된 자기<동일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간>이 다르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주위세계에 의존함이 없이 존재하자고 하는 인간존재에 특유한 경향성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주위세계 즉 비인간에 의하여 조정(措定)되어 있음으로 주위세계에 의하여 항상 제약되면서 존재한다. 여기에 인간과 주위세계와의 근본모순이 있게 되며 이 모순이 인간존재로 하여금 환경세계의 조정(措定)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동일성(同一性)을 관철하자는 내적충동을 낳게 한다. 인간존재는 이 내적충동으로 인하여 주위세계와의 부단한 작용과정으로 들어 가게 된다. 즉 자체를 조정(措定)하는 주위세계를 부단히 자신의 비유기적구성부분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주위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높여 나가게 되는것이다. 한마리로 표현하면 자체를 조정(措定)하자고 하는 모든 요소들과의 관계속에서 그 조정(措定)을 벗어 나자고 하는 경향성이 그것들로 하여금 부단히 자체의 구성부분으로 개변해 나가는 능동성으로 나타난다는것이다.

주위세계를 부단히 자체의 비유기적구성부분으로 인간화해 나가는 과정은 인간존재내의 비인간적요소도 동시에 구축해 나감으로써 인간존재는 자기<동일성>을 2 중의 의미에서 관철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비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은 두말것없이 인간존재가 지닌 사회적성격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성은 <인간>과 비인간을 가늠하는 근본징표라고 말할수 있다.

우에서 언급한 시바타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연은 <사회적물질대사>에 의하여 매개(媒介)됨으로써 처음으로 <자연의 진정한 부활>로 되며 즉(即)또한 대자적(對自的)인 자연으로 된다. 인간이란 <인간적자연>이며 력사가 <인간의 진정한 자연>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간에 의하여 <자연의 인간적본질>이 처음으로 정해진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¹²⁾

인간존재의 자기<동일성>이라는 문제를 푸는 열쇠는 틀림없이 인간존재가 지니는 사회성격에 있을것이다. 인간존재의 자기<동일성>과 그 사회성격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의 중요연구과제로 남기면서 본론고의 결론에 들어 간다.

2)인간성의 실현으로서의 실천

인간의 자기<동일성>을 인간존재가 자신을 타자=비인간과 구별하는 인간적특징=인간성일

반이라고 한다면 그 <동일성>을 관찰해나가는 인간실천은 한마디로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즉 <인간의 인간화>를 위한 과정의 필수적제기가 실천이라는 것이다.

인간존재가 자신을 타자=비인간과 구별하는 인간적특징=인간성일반을 인간의 자기<동일성>이라고 한다면 그 <동일성>을 관찰해나가는 인간실천은 한마디로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자신의 의한 활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즉 <인간>이 보다 더 <인간>으로 되기 위하여 자체로 하는 활동이 인간실천이라는것이다.

인간의 자기<동일성>지향은 개체차원에서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지향과 요구로 나타난다. 인간의 자기<동일성> 즉 인간성은 맑스가 지적한바 그 어떤 개인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라 과거-현재-미래를 관찰하는 산 인간에 의한 인간성실현을 의한 활동의 총체라고 말할수 있다.

로동자들이 자본가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서는것은 한가닥 가난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임금로동이라는 실천의 사회적형태가 인간성실현의 진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압박민족이 민족적지배에 대하여 투쟁하는것은 그에 의하여 단지 생활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인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적<동일성>의 민족적형태에 대한 부정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성을 실현해 나가는 인간의 존재방식으로서의 실천이라는 관점은 현대세계에서 현상하는 제병리들을 보다 깊이 파고 들고 그 비인간적본질을 까밝히는데서 필수불가결의 시점으로 되다싶다.

[주]

- 1) 헤겔 『精神現象學』 長谷川 宏 (作品社) 132 p
- 2) 엥겔스 『フォイエルバッハ論』 藤川 覚、秋間 実訳 (国民文庫) 76 p
- 3) 마르크스 『經濟學・哲學草稿』 城塚 登、田中 吉六訳 (岩波文庫) 206 p
- 4) 田中吉六 『史的唯物論の成立』 (季節社刊) 76 p
- 5) 同上 150 p
- 6) 마르크스 『資本論 第一卷 1①』 大月書店 234 p
- 7) 살트르 『実存主義とはなにか』 人文書院 20 p
- 8) 同上 32 P
- 9) 芝田進午 『人間性と人格の理論』 (青木書店) 24 p

현재 일본의 유물론학회에서의 이 문제에 관한 견해는 주로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이라는 구도로 설명되어 있다. 대표적인 견해를 하나 올리겠다.

《실천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는 호상간 고정된 상태로 가만히 있는 두가지 항(項)이 아니라 호상간 타자에 관련되는 통일적인 운동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양자의 서로가 전제로 되는 운동속에서 주도적인 것은 물론 주체이다. ... 주체는 자기의 본질적인 제력(諸力)을 표현하고 동시에 단련하며 도야(陶冶)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자기자신까지도 변혁해 나간다.》(《현대철학개론》56)

이 설명에 있어서도 실천주체가 지니는 주동성, 능동성의 근본요인에 대해서는 미해결로 남아 있다고 말할수 있다.

- 10) 有尾善繁『物質概念と弁証法』(青木書店)101 p
- 11) 橋本 剛『人間主義の擁護』(窓社)32 p
- 12) 芝田進午『人間性と人格の理論』(青木書店)24 p

사회과학논문집 (제 14호)

편집발행 在日本朝鮮社会科学者協會
中央常任理事会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TEL/FAX 03-3816-4335

발행날자 2002년 3월 16일